

살고 싶은 도시
포약하는 하남

사람 중심의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2022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2022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발간사

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주민을 위한 복지를 총 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에서 살아 숨 쉬며 함께 움직이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담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인 ‘사람 중심의 사회 복지실천’을 위해 모든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남시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복지 서비스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저희는 2년마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하남시민 4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령과 거주지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온라인을 통해 259명, 직접 조사(인터뷰)로 194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지, 주민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해주시는 주민분들과 지난 한 달 동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인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장 명 은 주

Contents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1
2. 조사개요	2

II.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7
2. 하남시 인구 현황	
가. 연령별 인구 현황	8
나. 행정구역(동)별 인구 현황	9
다. 구도심(신장1,2동, 덕풍1,2동) 인구 현황	11
라. 행정구역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14
마. 1인 가구 현황	15
3. 인구학적 특성	
가. 고령사회로 전환을 앞둔 하남시	16
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17
다. 아동·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다양화 필요	18
라. 구도심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9
4.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지역사회 특성)	
가. 지속 가능한 하남시로의 발걸음	20
나. 아동을 위한 도시, 아동친화 하남	21
다. 자급자족 도시로의 도약	22

Ⅲ. 욕구조사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25
2.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가. 복지관 인지도	29
나. 복지관을 알게 된 계기	29
다. 복지관 이용 경험	30
3. 이용한 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	
가. 이용 프로그램 현황	30
나. 이용 프로그램별 만족도 현황	31
4. 복지관 이용 경험과 만족 여부	
가. 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	37
나. 복지관 이용에 불만족한 이유	37
다.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38
5.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39
6. 지역주민교육 욕구조사	
가. 주민교육의 필요성	39
나.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40
다. 주민교육 진행 시 참여 의향	41
7. 지역주민 자치모임 욕구조사	
가. 지역주민 자치모임의 필요성	41
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자치모임	42
다. 주민자치모임 진행 시 참여 의향	42

8.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가. 우리 하남시의 공동체 의식 수준	43
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	43
다.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	44
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44
9. 자원봉사활동	
가. 자원봉사활동 경험	45
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45
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46
라. 참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46
10. 후원 활동	
가. 후원 참여 경험 여부	47
나. 후원에 참여하는 이유	47
다. 후원하는데 적당한 금액	48
라. 후원 참여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48
11. 가족복지사업 욕구	
가. 가정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49
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방법	50
다.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	50
12.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가. 아동·청소년 복지 욕구	
1)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	52
2) 방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53
3)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미만인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54
4)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이상인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55
5)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시 참여 의향	55
6) 참여하지 않는 이유	56
7)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하기 편한 시간	56

나. 성인(20세~40세 미만) 복지 욕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	57
2) (1인 가구만 해당)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57
3) 위와 같은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의사	58
다. 중·장년(40세~65세 미만) 복지 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	59
2) 필요한 혹은 참여하고 싶은 복지서비스·프로그램	59
3) 위와 같은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 의사	60
라. 어르신(만 65세 이상) 복지 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	61
2)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62
3)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62
13. 장애인 복지 욕구	
가. 응답 주체 및 장애가 있는 분의 성별	63
나. 장애가 있는 분의 연령	63
다. 장애 정도 및 유형	64
라. 지역 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64
마.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혹은 기관, 단체)	65
바.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65

IV. 결론 및 제언

1.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가. 복지관 인지도	69
나. 복지관 이용 경험 및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	69
다. 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한 이유	70
라.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70
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71
3. 주민교육의 필요성과 듣고 싶은 강좌	71

4. 주민자치모임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	72
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강화를 위한 활동	73
6. 자원봉사활동, 후원	
가. 자원봉사활동	74
나. 후원 참여	74
7. 가족복지사업 욕구	75
8.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가. 아동·청소년 복지 욕구	76
나. 성인(20세~40세 미만) 복지 욕구	77
다. 중·장년(40세~65세 미만) 복지 욕구	78
라. 어르신(65세 미만) 복지 욕구	78
9. 장애인 복지 욕구	79

V. 부록

2022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83
--------------------------	----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개요

1.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고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문제와 욕구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관은 위와 같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 연령, 가구 특성, 주거환경, 관계망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욕구유형은 광범위하며 △대상의 욕구를 선불리 일반화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기관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욕구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적어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욕구조사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주민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개별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복지서비스 근거가 된다. 서비스 계획, 진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활용하여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민과의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거나 인적·물적 자원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욕구조사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간단한 조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인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며 이는 모든 사업수행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고, 기관의 미션에 근접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며 하남시와 복지관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가. 조사명: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2022 지역주민 욕구조사

나. 기간: 2022. 10. 1.(화) ~ 2022. 10. 31.(월)

다. 대상: 하남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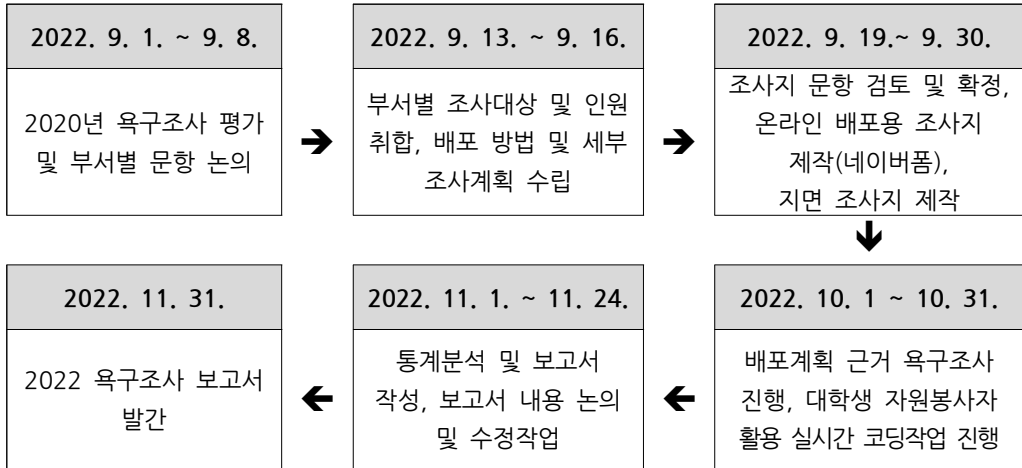
라. 조사목적: 지역사회와 주민의 욕구를 담은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마. 목표: 지역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와 욕구,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바. 조사내용

구분	설문내용	문항 수	조사대상
복지관 관련	복지관 인지도	15	(공통) 지역주민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사회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		
	지역주민교육의 필요성		
	주민자치모임의 필요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하남시 공동체 의식 수준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해 필요한 활동	4	
자원봉사, 후원	자원봉사 경험 및 필요한 봉사활동	4	
	후원 경험 및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	4	
가족복지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 및 복지사업 욕구	3	2인 이상 가정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및 복지사업 욕구	7	아동·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
성인 복지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복지사업 참여 의향	3	20세~40세 미만
중·장년 복지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복지사업 참여 의향	3	40세~65세 미만
어르신 복지	겪고 있는 어려움 및 필요한 프로그램	3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복지	겪고 있는 어려움 및 필요한 프로그램	3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사. 조사과정



아.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 인원
온라인 조사	1. 네이버폼 활용 온라인 욕구조사지 제작 2. 카카오톡 채널 친구(1,481명) 욕구조사 안내 메시지 발송 3. 지역주민 온라인 욕구조사 참여(200명) 4. 복지관 봉사단과 이용자 대상 욕구조사 실시(46명) 5. 홈페이지 내 욕구조사 참여링크 게시 및 참여 요청	259명
직접 조사 (인터뷰)	1. 자기 기재가 어려운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이미용서비스 이용 어르신 대상 1:1 인터뷰 진행(58명) 2. 사회교육,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자 인터뷰 진행(27명) 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인터뷰 진행(40명) 4. 복지관 봉사단(보따리), 지역주민 동아리 대상 조사(38명) 5. 담당 직원의 지역주민 만나기를 통한 인터뷰 진행(30명)	194명

자. 분석 방법

- 1)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 18.0을 활용해 빈도(명)와 교차로 통계분석을 진행함.
- 2) 주관식 외 모든 응답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질문과 무관하거나 무효한 응답은 제외하여 비율(%)로 작성함.
- 3) 주관식 응답은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서 작성 때 반영함.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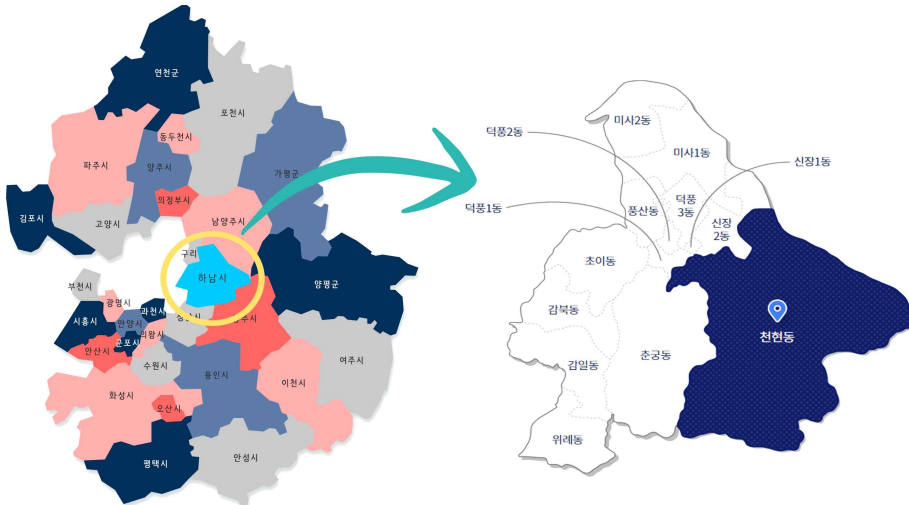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2. 하남시 인구 현황
3. 인구학적 특성
4.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II.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그림1> 하남시 행정구역도

하남시는 경기도 중동부에 있는 도시로 2022년 10월 기준 약 3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다.

2013년까지는 인구가 15만 명이 넘지 않는 중소도시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사지구 입주와 감일지구, 교산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수도권의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로는 서울 동쪽에 인접해 강동구와 송파구와 가까우며 경기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면적은 93km²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번째로 크며 하남시 내에선 천현동 면적(34.92km²)이 가장 크다.

도시의 형태는 과거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현 신장2동)에 생활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외 지역은 농촌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지역이었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신도시-구도심으로 생활환경이 분산되었다. 향후에는 1도심(구도심), 2부도심(미사, 교산), 3지구중심(감일, 위례, 천현)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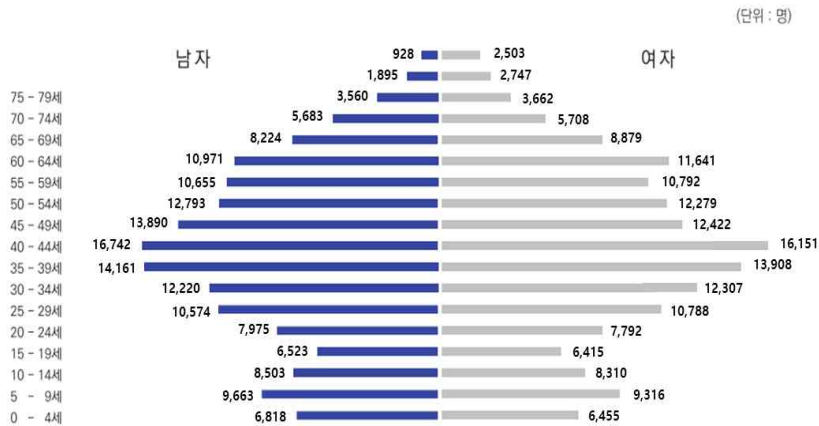
조사기관이 위치한 신장2동은 구도심으로 하남시청과 인접해 있다. 오래된 도심지역이라 신도시와 비교해 아파트와 생활·편의시설, 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인구밀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하남시(2021. 10.)

2. 하남시 인구 현황

가. 연령별 인구 현황

인구현황표(5세 별)					
연번	구분	인구수(명)	남(명)	여(명)	2020년 대비 증감폭(명)
	합 계	323,853	161,778	162,075	30,401
1	0 - 4세	13,273	6,818	6,455	3
2	5 - 9세	18,979	9,663	9,316	2,055
3	10 - 14세	16,813	8,503	8,310	3,078
4	15 - 19세	12,938	6,523	6,415	1,534
5	20 - 24세	15,767	7,975	7,792	360
6	25 - 29세	21,362	10,574	10,788	362
7	30 - 34세	24,527	12,220	12,307	2,744
8	35 - 39세	28,069	14,161	13,908	▲257
9	40 - 44세	32,893	16,742	16,151	5,364
10	45 - 49세	26,312	13,890	12,422	2,418
11	50 - 54세	25,072	12,793	12,279	3,868
12	55 - 59세	21,447	10,655	10,792	583
13	60 - 64세	22,612	10,971	11,641	2,073
14	65 - 69세	17,103	8,224	8,879	2,537
15	70 - 74세	11,391	5,683	5,708	1,430
16	75 - 79세	7,222	3,560	3,662	1,005
17	80 - 84세	4,642	1,895	2,747	892
18	84세 이상	3,431	928	2,503	352



〈그림2〉 하남시 인구분포도

하남시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과 육아를 겸하는 ‘30~4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44세’ 인구가 32,893명(10.15%)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으며 ‘35~39세’ 28,069명(8.6%), ‘45~49세’ 26,312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분포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인구피라미드 형태 중 ‘별형’에 해당하며 주로 도시나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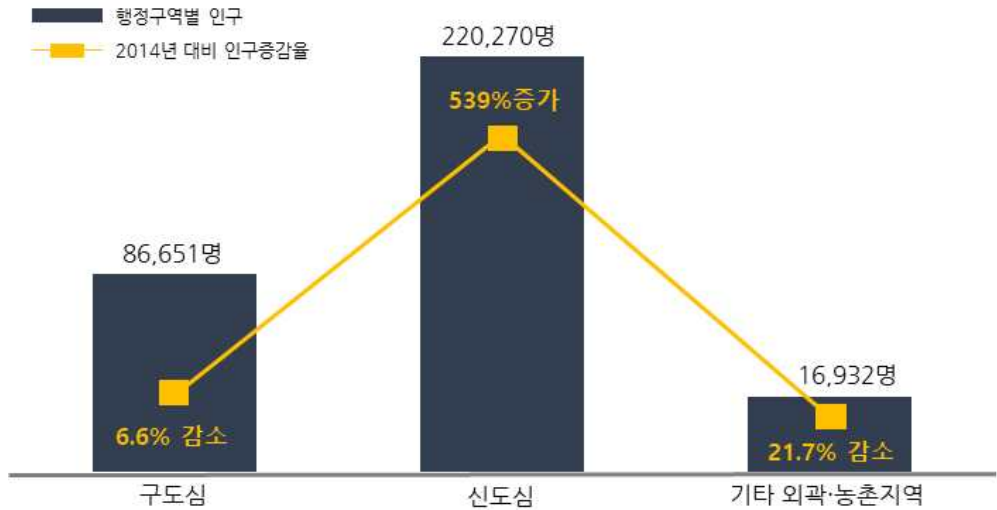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6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는 13번째로 많은 수치다. 향후 감일·교산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면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43,789명(13.5%)으로 조사되었는데 2020년 대비 16.5%(6,216명) 증가했다.²⁾

나. 행정구역(동)별 인구 현황

행정 구역	인구수(명)			성비(명)		세대수 (가구)	2014년 인구(명)	2014년 대비 증감(명)
	계	남	여	남	여			
합 계	323,853	161,778	162,075	49.95	50.05	139,941	148,896	174,957
천현동	7,195	3,975	3,220	1.23	0.99	4,033	8,372	▲1,177
신장1동	6,716	3,496	3,220	1.08	0.99	3,744	7,262	▲546
신장2동	46,346	22,868	23,478	7.06	7.25	19,444	45,025	1,321
덕풍1동	15,036	7,669	7,367	2.37	2.27	6,796	18,493	▲3,457
덕풍2동	18,553	9,349	9,204	2.89	2.84	9,068	22,015	▲3,462
덕풍3동	25,418	12,598	12,820	3.89	3.96	10,845	26,350	▲932
풍산동	29,769	14,695	15,074	4.54	4.65	11,107	1,067	28,702
감북동	2,730	1,511	1,219	0.47	0.38	1,511	5,715	▲2,985
감일동	33,799	16,900	16,899	5.22	5.22	12,464	前 감북동	33,799
위례동	30,412	14,924	15,488	4.61	4.78	10,699	前 감북동	30,412
춘궁동	3,561	2,030	1,531	0.63	0.47	2,014	3,926	▲365
초이동	3,446	1,962	1,484	0.61	0.46	1,975	3,629	▲183
미사1동	53,556	26,563	26,993	8.20	8.33	27,618	1,592	51,964
미사2동	47,316	23,238	24,078	7.18	7.43	18,623	5,450	41,866

2) 하남시청 인구통계, 주민등록 및 등록외국인 현황(2022. 9. 30.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신도시인 미사1동(53,556명)과 미사2동(47,316명)이 가장 많고 구도심인 신장2동이 46,346명, 또 다른 신도시인 감일동이 33,79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³⁾



〈그림3〉 행정구역별 인구 및 증감률

최근 10년 동안 하남시의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만큼 인구변화도 크게 이루어졌다. 미사지구가 입주가 본격화된 2014년과 비교⁴⁾했을 때 총인구는 174,957명이 증가했으며 신도시(덕풍3동, 미사1,2동, 풍산동, 위례동, 감일동)⁵⁾에서만 185,811명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구도심(신장1,2동, 덕풍1,2동) 및 외곽지역의 인구는 2014년 대비 10,854명 감소했는데, 특히 덕풍1동과 덕풍2동의 인구이탈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어 인구 일부가 관 내 신도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향후 예측으로는 신도시인 감일지구와 위례동, 구도심 재개발 예정지구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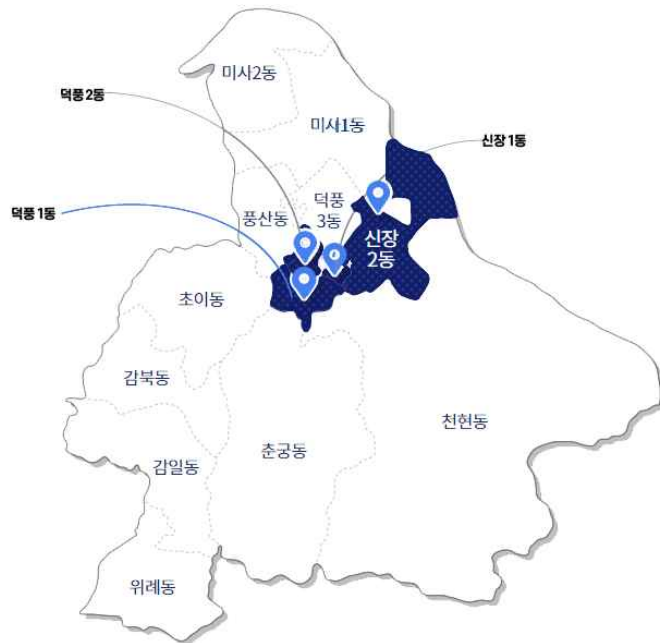
또한, 3기 신도시 교산지구(계획인구 약 7만 8천 명)가 위치한 춘궁동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 말에는 50만 인구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3) 하남시청 인구통계, 주민등록 및 등록외국인 현황(2022. 9. 30. 기준)

4) 하남시청 인구통계, 주민등록 및 등록외국인 현황(2014. 12. 30. 기준)

5) 구도심-신도시 행정구역 분류는 하남시청 사회조사보고서(2021) 행정구역 총화분류에 따름

다. 구도심(신장1,2동, 덕풍1,2동) 인구 현황⁶⁾



〈그림4〉 하남시 구도심 행정구역도

행정구역	인구수			2020년 인구(명)	2020년 대비 증감(명)
	계(명)	남(명)	여(명)		
합 계	86,651	43,382	43,269	88,053	▲1,402
신장1동	6,716	3,496	3,220	6,698	▲18
신장2동	46,346	22,868	23,478	45,552	794
덕풍1동	15,036	7,669	7,367	16,325	▲1,289
덕풍2동	18,553	9,349	9,204	19,478	▲925

하남시의 구도심은 신장1동과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다.

인구는 총 86,651명으로 하남시 인구의 26.7%가 거주하고 있다. 4개 동 중 신장2동 인구가 46,346명으로 가장 많고 덕풍2동, 덕풍1동, 신장1동 순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구도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덕풍1동이 1,289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덕풍2동 925명, 신장1동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장2동의 경우 794명이 전입했다.

6) KOSIS 행정구역(읍면동)별/5세 별 주민등록인구(2022. 9.)

구도심의 세대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하남시 전체인구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그림과 같다.

연번	구분	구도심		신도시		하남시	
		인구수(명)	비중	인구수(명)	비중	인구수(명)	비중
	합 계	86,651	100%	220,270	100	323,853	100
1	0 - 4세	2,762	3%	10,229	5%	13,273	4%
2	5 - 9세	3,136	4%	15,522	7%	18,979	6%
3	10 - 14세	3,069	4%	13,334	6%	16,813	5%
4	15 - 19세	3,132	4%	9,359	4%	12,938	4%
5	20 - 24세	4,407	5%	10,648	5%	15,767	5%
6	25 - 29세	5,526	6%	14,667	7%	21,362	7%
7	30 - 34세	6,285	7%	17,049	8%	24,527	8%
8	35 - 39세	6,476	7%	20,609	9%	28,069	9%
9	40 - 44세	6,808	8%	25,057	11%	32,893	10%
10	45 - 49세	5,993	7%	19,233	9%	26,312	8%
11	50 - 54세	7,062	8%	16,455	7%	25,072	8%
12	55 - 59세	6,953	8%	12,782	6%	21,447	7%
13	60 - 64세	8,328	10%	12,282	6%	22,612	7%
14	65 - 69세	6,402	7%	9,148	4%	17,103	5%
15	70 - 74세	4,306	5%	6,133	3%	11,391	4%
16	75 - 79세	2,895	3%	3,703	2%	7,222	2%
17	80 - 84세	1,844	2%	2,281	1%	4,642	1%
18	85세 이상	1,267	1%	1,779	1%	3,431	1%

구도심의 경우 ‘60~64세’ 인구가 8,328명으로 구성비 중 가장 많으며 ‘50~54세’ 7,062명, ‘55~59세’가 6,95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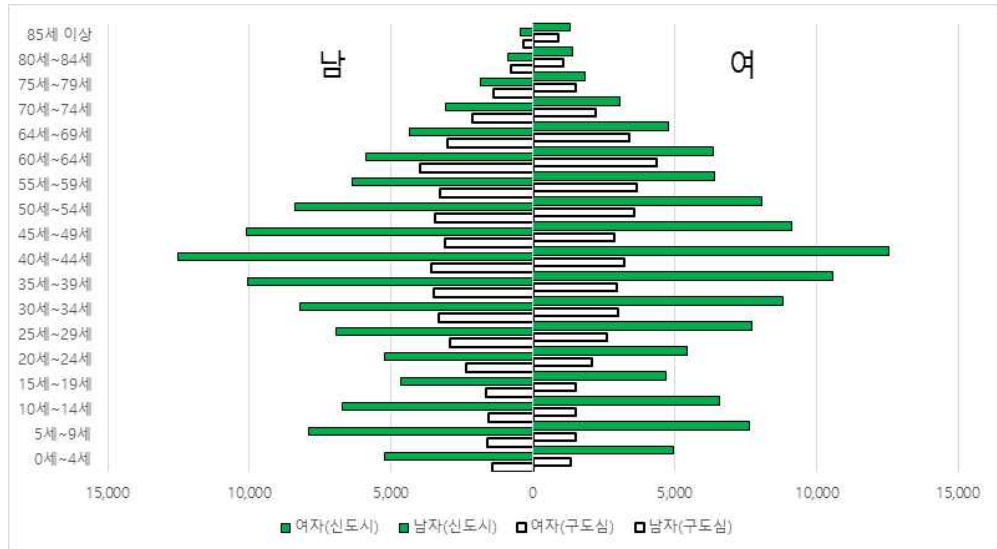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도시보다 36,345명 적은 12,09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남시 아동·청소년 인구의 1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49세’의 청년, 중년층은 총 35,495명으로 구도심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50~64세’까지의 장년층 인구는 총 22,343명으로 2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시 전체 구성비보다 높다.

‘65세 이상’ 인구는 19.3%로 하남시 전체 노인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도시보다 약 8.8%, 하남시 전체 비중보다 5.8% 높다.

하남시 전체와 신도시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45%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연령이 높은 편이다.



〈그림5〉 구도심-신도시 세대별 인구분포도

세대별 인구분포도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신도시는 청·장년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노인보다 많아 도시 구성에 안정적인 ‘별형’ 구조를 보인다.

반면에 구도심은 40~50세 이상의 중장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구성되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밀도에 비해 높고, 아동·청소년 인구가 적은 ‘방추형’ 모델에 해당한다.

라. 행정구역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행정구역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 수급자(명)
	가구	수급권자(명)	일반(명)	조건부(명)	특례(명)	
합 계	5,449	7,311	6,556	482	119	144
시설	133	133	3	0	0	130
천현동	178	243	202	32	4	5
신장1동	230	306	282	18	6	0
신장2동	342	453	416	28	8	1
덕풍1동	270	367	337	24	6	0
덕풍2동	597	799	713	74	12	0
덕풍3동	626	986	881	85	18	2
풍산동	88	128	125	3	0	0
감북동	35	51	43	6	1	1
감일동	622	792	741	43	7	1
위례동	40	49	44	5	0	0
춘궁동	101	110	103	5	2	0
초이동	80	89	82	5	0	2
미사1동	603	890	837	43	10	0
미사2동	1,504	1,915	1,757	111	45	2

하남시 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총 7,311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하며 2020년(6,045명)⁸⁾ 대비 1,266명(20.9%) 증가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미사2동이 1,9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덕풍3동 986명, 미사1동 890명, 덕풍2동 799명, 감일동 792명, 신장2동 453명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 인구의 65.1%(4,760명)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13단지, 14단지, 17단지(미사동) 및 꽃외마을 1,2단지, 새뜰마을 3,4단지(덕풍3동), 감일 8단지(감일동) 등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이 위치한 구도심에는 1,925명(26.3%)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외곽·농촌지역, 시설 거주자는 626명으로 조사되었다.

7)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구분별 총괄 현황, 하남시(2022. 9.),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8) 제32회 하남시 통계연보, 하남시(2020)

마. 1인 가구 현황⁹⁾

(단위:명)

연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7년 대비 증감
합 계	17,910	21,367	27,118	33,759	38,063	20,153
15세 미만	-	-	-	-	-	
15~19세	47	43	65	75	61	14
20~24세	474	593	926	1,349	1,315	841
25~29세	1,415	1,907	3,334	5,112	5,673	4,258
30~34세	1,831	2,297	3,292	4,731	5,733	3,902
35~39세	1,825	2,314	3,152	3,825	4,207	2,382
40~44세	1,565	1,835	2,312	2,876	3,467	1,902
45~49세	1,764	1,987	2,358	2,625	2,872	1,108
50~54세	1,631	1,842	2,111	2,320	2,580	949
55~59세	2,005	2,160	2,300	2,444	2,543	538
60~64세	1,753	2,113	2,367	2,674	3,041	1,288
65~69세	1,299	1,539	1,776	2,140	2,489	1,190
70~74세	943	1,164	1,324	1,508	1,679	736
75~79세	678	778	888	1,031	1,181	503
80~84세	427	479	548	624	712	285
85세 이상	253	316	364	425	510	257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하남시 내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총 38,063명이며 하남시 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가구 수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청·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112%(20,153명)가 증가했으며 중·장년과 65세 이상 노년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30~34세’ 인구가 5,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673명, ‘35~39세’ 4,207명, ‘40~44세’ 3,46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30세’의 청년인구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구역이 조성되었고 미사역 개통 및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서울, 판교 등 출퇴근에 용이한 교통권이 마련되어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은 6,571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증가 추이를 볼 때, 노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9) KOSIS 가구조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 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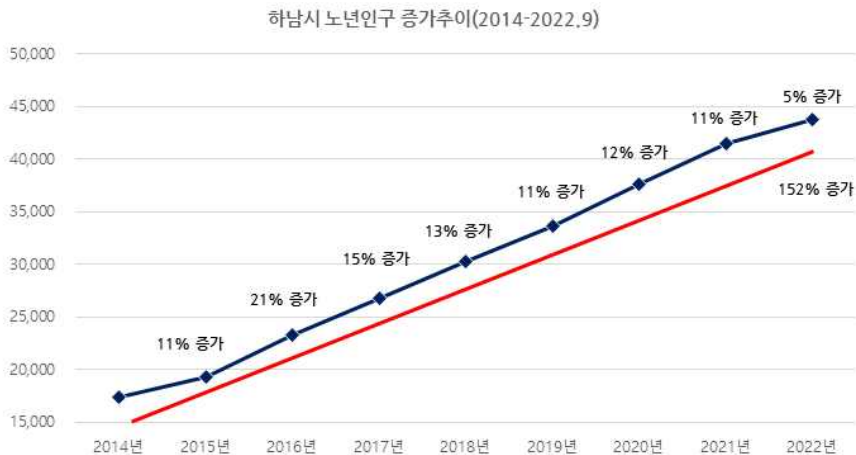
3. 인구학적 특성

가. 고령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하남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져 30~40대의 청년, 중년층이 증가했고, 출산과 육아를 겸하는 세대의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구도 함께 늘어났다.

인구분포 구조를 분석해보면 2014년 이전 인구증가율이 정체되고 출생률은 낮은 방추형 구조에서 생산연령인구와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의 인구구조로 변화했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의 노령화와 노인 인구의 유입으로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하남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5%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값은 아래와 같다.



〈그림6〉 하남시 노년 인구 증가 추이

구분	구도심	하남시	경기도	대한민국
노령화 지수 ¹⁰⁾	186.2	89.2	113.3	152
고령인구 비율	19.2%	13.5%	14.5%	17.7%
고령사회 구분 ¹¹⁾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하남시의 노령화 지수는 89.2로 경기도 및 대한민국 전체 지수보다 낮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13.5%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 100.

11) 고령사회 구분 =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특히 구도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도심의 노령화 지수는 186.2이며, 이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발표된 전국 평균 133을 한참 넘는 수치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은 19.2%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년기를 바라보는 60세~64세 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하남시는 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둔 구도심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복지서비스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21년 1인 가구는 2017년 대비 약 154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

하남시 역시 증가추세가 매우 빠르다. 2021년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88%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조사된 전국의 증감률 27.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사건·사고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마련과 서비스 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인구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남시도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알아보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60세 이상 장년·노인 인구 또한 은퇴,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구도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더욱 높다.

따라서, 6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며 문제와 위험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변화 필요

인구수가 적고 중장년층이 많았던 하남시는 오랜 기간 아동·청소년 인구가 정체되어있었다. 통계청 KOSIS에서 조회가 가능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수는 연평균 33,464명이었으며 2012년~2014년(2014년 29,213명)에는 아동수가 3만 명 밑으로 내려왔다.(아래 표 참조¹²⁾)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1992~2011	평균 34,130명	2015	33,143명	2019	53,279명
2012	29,820명	2016	42,972명	2020	55,333명
2013	28,865명	2017	46,974명	2021	61,268명
2014	29,213명	2018	50,955명	2022.9	62,003명

아동의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2015년으로,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서부터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8년 5만 명, 2021년에는 6만 명을 넘어 현재는 2014년 대비 112%(32,790명)가 증가한 62,003명이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다.

불과 7년 사이에 아동 인구가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새롭게 유입된 인구의 기대감은 아동 복지 욕구로 표출될 것이다.

이에 복지관은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적 흐름과 인구변화, 욕구에 근거한 복지서비스를 기획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2) KOSIS 행정구역(읍면동)별/5세 별 주민등록인구(1992~2022. 9.)

라. 구도심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신도시의 등장으로 원도심과 농촌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사회는 신도시와 구도심, 농촌지역으로 분리됐으며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져 인구분포에 큰 변화를 주었다.

구도심은 장년층과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는 구도심이 갖는 특성이다. 30대~40대의 청장년들이 신도시로 이동하고, 오랜 기간 원도심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생활 터전을 일궈온 장년층과 노인은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인구의 고령화다. 이미 구도심 인구의 19.2%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뒀다. 아동, 청장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도시 내에 생산적인 활동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구도심이 본래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잃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장년, 노인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은퇴와 실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장년과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칠 위험이 크며, 저소득 가구는 낙후된 주거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다. 또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 관계망까지 단절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복지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도시에도 고령층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원은 구도심보다 많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좋고 병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필수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내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로 비교적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반대로 구도심과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고 광범위하다. 복지관이 전역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며 이웃공동체 형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편의시설 등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사업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역사회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관 역시 구도심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귀담고,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도심만의 정체성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4.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지역사회 특성)

가. 지속 가능한 하남시로의 발걸음



하남시 2050 탄소중립선언



인성실천 프로그램-환경체험교육

탄소중립, 지속 가능 도시 실현을 위한 하남시의 움직임이 뜨겁다. 지자체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 1월 ‘녹색환경국’을 신설하여 환경정책발굴, 제도 도입,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교육도시 하남’을 선포하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센터 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교육 종합계획¹³⁾을 수립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민간단체도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 4월에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하남비상행동’이 출범되어 현재는 약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지역주민조직단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이 활동에 동참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가 조성되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하남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보따리 봉사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다시, 그린지구’ 등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과 개별 프로그램에 환경을 녹여내 지속 가능한 하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 주민 모두 하나 되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한다.

13) 하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하남시(2021. 11.)

나. 아동을 위한 도시, 아동친화 하남

아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남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인프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하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개년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4월에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민선 8기를 맞아 아동보육정책 및 관련 시설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자유롭게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특화형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하남시 어린이회관)건립,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69개소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감일, 구도심, 미사),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오늘은 노는 날’



마을 체험학교-나눔 교육

기관에서도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활동으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2년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오늘은 노는 날’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마을 체험학교’를 통해 직업 탐구의 기회와 나눔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의견, 욕구를 항상 귀담아듣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자급자족 도시로의 도약



하남시 벤처센터	
○ 위치	하남시 관단산로 239 (황우동)
○ 부지면적	4,587㎡
○ 건축면적	8,785㎡ (벤처직장 시설) 지하2층, 지상 7층
○ 입주업체	아래테스타(주) 외 7개업체 벤처기업
○ 문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 031-790-6058)

하남시 벤처센터



KOTRA-하남시 업무협약

30만 인구를 넘어,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시는 민선 8기를 맞아 '하남형 자족도시 완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이에 하남시는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전문가 채용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시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 유망 바이오기업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육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남벤처센터에는 IT 중심의 13개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기업을 위한 부지계획도 마련되어있다. 판교테크노밸리 1.4배에 해당하는 하남 교산지구를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하여 동부권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기업 유치와 복지사업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남에 기업과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적 자원 개발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III

-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2.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3. 이용한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4. 복지관 이용 경험과 만족도
 5.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6. 지역주민교육
 7. 지역주민 자치모임
 8.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9. 자원봉사활동
 10. 후원활동
 11. 가족복지사업 욕구
 12.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13. 장애인 복지사업 욕구
- 

Ⅲ. 2022 욕구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 여부, 가족 형태, 경제적 수준, 동거가족 수, 경제활동, 하남시 거주기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가.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	68	15.0
여	385	85.0
합계	453	100

욕구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총 453명으로 이 중 여성이 385명(85%), 남성 68명(15%)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10~14세	1	0.2
15~19세	1	0.2
20~24세	22	4.9
25~29세	26	5.7
30~34세	29	6.4
35~39세	44	9.7
40~44세	88	19.4
45~49세	54	11.9
50~54세	31	6.8
55~59세	7	1.5
60~64세	14	3.1
65~69세	21	4.6
70~74세	39	8.6
75~79세	39	8.6
80~84세	27	6.0
85세 이상	10	2.2
합계	453	100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44세'가 88명(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45~49세' 54명(11.9%), '35~39세' 44명(9.7%), '70~74세' 및 '75~79세' 각 39명(8.6%)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하 표 참조)

다.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신장1동	46	10.6
신장2동	133	29.4
덕풍1동	38	8.4
덕풍2동	28	6.2
덕풍3동	34	7.5
천현동	22	4.9
감북동	2	0.4
풍산동	24	5.3
춘궁동	3	0.7
초이동	4	0.9
미사1동	35	7.7
미사2동	59	13.0
위례동	8	1.8
감일동	15	3.3
합계	453	100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복지관이 위치한 ‘신장2동’이 133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사2동’ 59명(13%), ‘신장1동’ 46명(10.6%), 덕풍1동 38명(8.4%), ‘미사1동’ 35명(7.7%), ‘덕풍2동’ 28명(2.8%), ‘풍산동’ 24명(5.3%), ‘천현동’ 22명(4.9%), ‘감일동’ 15명(3.3%) 순으로 조사됨. 위례동, 초이동, 춘궁동, 감북동은 10명 미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라. 혼인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	82	18.1
기혼	295	65.1
별거	1	0.2
이혼	32	7.1
사별	40	8.8
기타	3	0.7
합계	453	100

응답자의 65.1%(295명)가 ‘기혼’이며 ‘미혼’은 82명(18.1%), ‘사별’ 40명(8.8%), ‘이혼’ 32명(7.1%), ‘별거’ 1명으로 조사되었음. ‘기타’ 응답에 대한 의견은 기재되지 않았음.

마. 가족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1인 가구	92	20.3
부부	74	16.3
부부+자녀	230	50.8
부모+부부	3	0.7
조부모+부모+자녀	17	3.8
한부모+자녀	29	6.4
조부모+손자녀	4	0.9
기타	4	0.9
합계	453	100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응답자가 230명(5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92명(20.3%), ‘부부’ 74명(16.3%), ‘한부모가정’이 29명(6.4%) 순으로 조사되었음.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부모+자녀 가정’이 17가구,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4가구로 나타남. 기타 응답은 4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바. 경제적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일반가구	328	72.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	7.3
차상위	28	6.2
저소득	41	9.1
잘 모름	23	5.1
합계	453	100

경제적 수준을 묻는 문항에 328명(72.4%)이 ‘일반가구’에 응답했고 ‘저소득’ 41명(9.1%), ‘기초생활수급자’ 33명(7.3%), ‘차상위’ 28명(6.2%)으로 조사되었음. 경제적 수준을 모르는 응답자는 23명(5.1%)으로 나타남.

바. 동거가족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85	18.8
2명	90	19.9
3명	106	23.4
4명	115	25.4
5명 이상	57	12.6
합계	453	100

‘본인 포함 4명’으로 구성된 가정이 25.4%(115명)로 가장 많았으며 ‘3명 동거’ 23.4%(106명), ‘2명 동거’ 19.9%(90명), ‘1인 가구’ 18.8%(85명), ‘5명 이상’ 가정은 12.6%(57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사. 경제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외벌이	203	44.7
맞벌이	126	27.9
해당없음	124	27.4
합계	453	100

응답자의 44.7%(203명)가 ‘외벌이 가정’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정’은 126명(27.9%), ‘해당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124명(27.4%)으로 조사되었음.

아. 하남시 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5년 미만	120	26.5
5~10년 미만	137	30.2
10~15년 미만	55	12.1
15~20년 미만	30	6.6
20년 이상	111	24.5
합계	453	100

하남시 거주기간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0.2%(130명)가 ‘5~10년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년 미만’ 120명(26.5%), ‘20년 이상’ 111명(24.5%), ‘10~15년’ 미만 55명(12.1%), ‘15~20년’ 미만 30명(6.6%) 순으로 조사되었음.

2.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가. 복지관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15	3.3
위치정도는 알고 있다	84	18.5
직접 방문해본 적이 있다	139	30.7
가족이나 본인이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41	31.1
사업,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	74	16.3
합계	453	100

복지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41명(31.1%)이 ‘가족이나 본인이 이용해본 적이 있다’, 139명(30.7%)이 ‘직접 방문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함. 또한 ‘사업,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4명(16.3%)으로 조사되었음.

반면에 ‘위치정도만 알고 있는’ 응답자는 84명(18.5%)으로 나타났으며 15명(3.3%)이 ‘복지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함.

나. 복지관을 알게 된 계기

구분	빈도(명)	비율(%)
직접 방문	158	34.9
인터넷 검색을 통해	47	10.4
SNS를 통해(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37	8.2
홍보물 (소식지, 포스터 등)	26	5.7
직원의 안내를 통해	21	4.6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19	4.2
이웃의 소개	80	17.7
지나다 건물을 보고	52	11.5
기타	13	2.9
합계	453	100

복지관을 알게 된 계기로는 ‘직접 방문’이 34.9%(158명)로 가장 많았고 ‘이웃의 소개’ 80명(17.7%), ‘지나다 건물을 보고’ 52명(11.5%), ‘홍보물’ 26명(5.7%), ‘직원의 안내’ 21명(4.6%) 순으로 응답함. 인터넷 검색이나 SNS 플랫폼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복지관을 알게 된 주민은 각각 10.4%와 8.2%로 조사되었음.

다. 복지관 이용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이용하고 있다	239	52.8
과거에 이용했다	108	23.8
이용한 적이 없다	106	23.4
합계	453	100

복지관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 239명(52.8%)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8명(23.8%)이 ‘과거에 이용했다’고 답함. ‘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주민’은 106명(23.4%)으로 조사되었음.

3. 이용한 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그램 별 만족도

가. 이용 프로그램 현황(중복선택)

연번	구분	빈도(건)	비율(%)
1	가족관계증진교육(부모교육, 아빠 교육 등)	158	45.5
2	가족문화 행사(공연, 어린이날 행사 등)	200	57.6
3	아동·가족 치료교육센터(언어, 놀이, 인지, 미술 등)	143	41.2
4	1인 가구 지원사업(같이혼밥, 이웃아름 등)	131	37.7
5	교육문화 강좌(아동·성인, 어르신 한글교실)	164	47.2
6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결연후원, 사례관리, 밑반찬 지원 등)	128	36.8
7	휠체어 대여	125	36
8	자원봉사활동(개인·단체)	139	40
9	어르신 대상 서비스(이·미용, 스마트교육, 정서 지원)	140	40.3
10	지역축제, 행사, 바자회 등	160	46.1
11	청장년 프로그램(홍보서포터즈, 멘토링 등)	127	36.5
12	어르신 일자리	136	39.1
13	지역주민 동아리	145	41.7
14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168	48.4
15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사회복지, 취미·소양, 전문교육 등)	140	40.3

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347명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6.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가족문화행사(공연, 어린이날 행사 등)’로 57.6%(200명)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48.4%(168명)로 2순위, ‘교육문화’가 47.2%(164명) 3순위로 조사됨. 그 외 ‘지역축제, 행사, 바자회 등’ 46.1%(160명), ‘가족관계증진교육’ 45.5%(158명), ‘지역주민동아리’ 41.7%(145명), ‘아동·가족 치료교육센터’ 41.2%(143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은 13건이 있었으나 선택지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 값으로 처리함.

나. 이용프로그램 별 만족도 현황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관계증진교육 (부모교육, 아빠 교육 등)	매우 만족	58	36.7
	만족	65	41.1
	보통	31	19.6
	불만족	3	1.9
	매우 불만족	1	0.6
	합계	158	100

가족관계증진교육을 이용한 158명의 응답자 중 36.7%(58명)가 ‘매우 만족’, 41.1%(65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보통’은 31명,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인원은 4명으로 조사됨.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문화행사 (공연, 어린이날 행사 등)	매우 만족	70	43.5
	만족	55	34.2
	보통	32	19.9
	불만족	4	2.5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61	100

가족문화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161명으로 이 중 43.5%(70명)가 ‘매우 만족’, 34.2%(55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통’은 32명 (19.9%)이 응답했으며 ‘불만족’ 4명, ‘매우 불만족’은 없었음. ‘불만족’에 대한 의견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아동, 가족 치료교육센터 (언어, 놀이, 인지, 미술 등)	매우 만족	53	37.1
	만족	49	34.3
	보통	37	25.9
	불만족	3	2.1
	매우 불만족	1	0.7
	합계	143	100

아동, 가족 치료교육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143명으로 이용자의 37.1%(53명)가 '매우 만족', 34.3%(49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은 25.9%(37명),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3명과 1명으로 조사되어 치료교육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이밥, 이웃이음 등)	매우 만족	49	37.4
	만족	46	35.1
	보통	34	26.0
	불만족	2	1.5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31	100

1인가구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131명으로 이 중 37.4%(49명)가 '매우 만족', 35.1%(46명)가 '만족'에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통' 응답은 34명(26%), '불만족'은 2명(1.5%)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인원은 없었음.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문화 강좌 (아동, 성인, 어르신 한글 교실 등)	매우 만족	68	41.5
	만족	61	37.2
	보통	32	19.5
	불만족	3	1.8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64	100
불만족 사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대기가 많아서 이용이 어렵다 -초·중·고생들이 평일에 이용하기에 어렵다		

교육문화 강좌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164명으로 이 중 41.5%(68명)가 '매우 만족', 37.2%(61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은 32명(19.5%)이며 불만족은 3명(1.8%)이 응답함.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결연후원, 사례관리, 밀반찬지원 등)	매우 만족	42	32.8
	만족	52	40.6
	보통	33	25.8
	불만족	1	0.8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28	100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128명으로 응답자의 32.8%(42명)가 ‘매우 만족’, 40.6%(52명)가 ‘만족’에 응답했으며 ‘보통’ 25.8%(33명), ‘불만족’ 1명으로 조사됨.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휠체어 대여	매우 만족	42	33.6
	만족	51	40.8
	보통	31	24.8
	불만족	0	0
	매우 불만족	1	0.8
	합계	125	100

휠체어 대여를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25명이며 이 중 33.6%(42명)가 ‘매우 만족’, 40.8%(51명) ‘만족’, 24.8%(31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명이 ‘매우 불만족’에 응답함.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자원봉사활동 (개인, 단체)	매우 만족	54	38.8
	만족	51	36.7
	보통	33	23.7
	불만족	1	0.7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39	10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인원은 139명이며 이 중 38.8%(54명)가 ‘매우 만족’에 응답했으며 36.7%(51명)가 ‘만족’, 23.7%(33명)가 ‘보통’에 응답함. ‘불만족’ 의견은 1명이며 ‘불만족’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어르신 대상 서비스 (이미용, 스마트교육, 정서지원 등)	매우 만족	50	35.7
	만족	48	34.3
	보통	39	27.9
	불만족	1	0.7
	매우 불만족	2	1.4
	합계	140	100

어르신 대상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40명으로 이 중 50명(35.7%)이 ‘매우 만족’에 응답했으며 48명(34.3%)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보통’은 39명(27.9%)이며 ‘불만족’ 1명, ‘매우 불만족’ 2명으로 집계됨. ‘불만족’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축제, 행사, 바자회 등	매우 만족	73	45.6
	만족	50	31.3
	보통	33	20.5
	불만족	2	1.3
	매우 불만족	2	1.3
	합계	160	100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바자회 등에 참여한 인원은 160명으로 이 중 45.6%(73명)가 ‘매우 만족’, 31.3%(50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은 20.5%(33명)였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2명 집계되었음. ‘불만족’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청·장년 프로그램 (홍보 서포터즈, 멘토링 등)	매우 만족	39	30.7
	만족	43	33.9
	보통	42	33.1
	불만족	3	2.4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27	100

청·장년 프로그램 이용자는 127명으로 이 중 30.7%(39명)가 ‘매우 만족’, 33.9%(43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은 33.1%(42명)였으며 ‘불만족’은 3명이 응답함. ‘불만족’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어르신 일자리	매우 만족	66	48.6
	만족	38	28.6
	보통	29	21.7
	불만족	1	0.7
	매우 불만족	1	0.7
	합계	136	100
불만족 사유	- 노인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인원은 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8.6%(66명)가 ‘매우 만족’, 28.6%(38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에 응답한 인원은 29명(21.7%)이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됨.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주민 동아리	매우 만족	55	37.9
	만족	48	33.1
	보통	37	25.5
	불만족	5	3.4
	매우 불만족	0	0
	합계	145	100
불만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많은거 같습니다 - 활동금 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거 같습니다 		

지역주민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은 145명으로 이 중 37.9%(55명)가 ‘매우 만족’, 33.1%(48명)가 ‘만족’에 응답함. ‘보통’은 37명(25.5%)으로 집계됐으며 ‘불만족’이 5명으로 조사되었음. ‘불만족’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음.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매우 만족	72	42.9
	만족	56	33.3
	보통	37	22
	불만족	2	1.2
	매우 불만족	1	0.6
	합계	168	100
불만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시간대가 너무 협소하다 - 시간이 넉넉하게 운영된다면 외벌이 부모나 아이들이 배고픔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2.9%(72명)가 ‘매우 만족’, ‘만족’은 33.3%(56명)로 조사됨. ‘보통’은 37명(22%), ‘불만족’ 2명, ‘매우 불만족’ 1명으로 나타남.

프로그램명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 취미, 소양, 전문교육 등)	매우 만족	53	37.9
	만족	54	38.6
	보통	30	21.4
	불만족	2	1.4
	매우 불만족	1	0.7
	합계	140	100
불만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너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문자 등의 알림이 너무 늦어서 이미 마감된 후거나 마감이 임박해서 알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불만족함. -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 어려움.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14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37.9%(53명)가 ‘매우 만족’, 38.6%(54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보통’ 의견은 21.4%(30명)며 ‘불만족’ 2명, ‘매우 불만족’ 1명으로 집계됨.

4. 복지관 이용경험과 만족여부

가. 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음	39	11.4
접근성이 좋음	76	22.3
프로그램 이용비가 무료거나 저렴해서	99	29.0
시설이 쾌적함	13	3.8
프로그램 질이 좋아서	34	10
주차가 편리함	2	0.6
직원이 친절함	72	21.1
기타	6	1.8
합계	341	100

‘복지관 이용 시 만족했던 부분’에 대해 341명이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이용비가 무료거나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29%(99명)로 가장 많았음.

그 외 ‘접근성이 좋음’ 76명(22.3%), ‘직원이 친절함’ 72명(21.1%),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음’ 39명(11.4%), ‘프로그램 질이 좋아서’ 34명(10%), ‘시설이 쾌적함’ 13명(3.8%), ‘주차가 편리함’ 2명(0.6%)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이 6건 있으나 위 선택지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기재하지 않음.

나. 복지관 이용에 불만족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69	37.1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44	23.7
프로그램 이용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비싸서	6	3.2
시설이 불편해서	5	2.7
프로그램 질이 좋지 않아서	3	1.6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40	21.5
직원이 불친절해서	1	0.5
기타	18	9.7
합계	186	100
기타 의견	- 직장인이라 참여가 어려움.(저녁 프로그램 부족)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학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인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더욱 혼잡하고 복잡함. - 청년(20-30)대상, 저소득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 대상 보편적 복지 서비스 희망함(정신건강/마음건강관련 프로그램희망) - 아직 미취학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서 이용이 어려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지면 좋겠음.
-------	---

‘복지관 이용 시 불만족했던 부분’을 묻는 문항에 186명이 응답했으며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적어서’가 37.1%(69명)로 가장 많았음. 그 외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44명(23.7%),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40명(21.5%), ‘프로그램 이용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비싸서’ 6명(3.2%), ‘시설이 불편해서’ 5명(2.7%), ‘프로그램 질이 좋지 않아서’ 3명(1.6%), ‘직원이 불친절해서’ 1명(0.5%)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의견은 18건이 접수됐으며 선택지 중복 및 유사 의견을 제외하고 표에 기입함.

다. 복지관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접근성이 떨어져서(거리, 교통 등)	13	12.4
운영시간이 개인 일정과 맞지 않아서	25	23.8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용한다는 생각	7	6.7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5	4.8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13	12.4
복지관에 대해 잘 몰라서	41	39.0
기타	1	1.0
합계	105	100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복지관에 대해 잘 몰라서’가 39%(41명)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시간과 개인 일정이 맞지 않아서’ 23.8%(25명), ‘접근성이 떨어져서’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각 12.4%(13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용한다는 생각’ 7명(6.7%),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5명(4.8%)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의견 1건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지 않음.

5.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가족: 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관계 증진	124	16
상담: 지역주민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 사업	155	20
취약계층: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급식지원, 보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리적, 심리, 정서적으로 관리	189	24.1
주민조직: 주민모임(동아리, 캠페인 등) 및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과제 해결	93	12
문화: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행사 및 지역축제 등	124	16
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문화 강좌 (취미, 교육, 건강증진 강화 등 제공)	78	10
기타	15	1.9
합계	778	100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에 대한 778건의 응답 중 24.1%(189건)가 ‘취약계층 지원’에 응답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서비스’ 155건(20%), ‘가족기능강화’와 ‘문화생활 지원’이 각 124건(16%) 순으로 조사됨.

그 외 ‘주민조직활동’은 93건(12%), ‘교육제공’은 78건(10%)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은 15건이 접수되었으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6. 지역주민교육

가. 주민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192	42.4
필요한 편이다	198	43.7
그저 그렇다	44	9.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2
합계	453	100

‘주민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198명(43.7%)이 ‘필요한 편이다’, 192명(42.4%)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저 그렇다’는 44명(9.7%)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명(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0.2%)으로 나타남.

나.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자녀육아, 양육 관련교육	131	15.3
경제 관련교육	91	10.7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111	12.9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교육	179	20.8
취미 관련 교육(공예, 요리, 소품 만들기 등)	197	22.9
관계, 소통 관련 교육	57	6.7
사회복지 관련 교육	49	5.7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주민조직, 마을만들기 등)	36	4.2
기타	7	0.8
합계	858	100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에 858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취미 관련 교육(공예, 요리, 소품 만들기 등)’이 197건(22.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교육’은 179건(20.8%)이었으며 ‘자녀육아, 양육관련 교육’은 131건, ‘개인 역량강화교육’ 111건, ‘경제 관련 교육’ 91건, ‘관계, 소통 교육’ 57건, ‘사회복지 관련 교육’ 49건, ‘공동체 의식 함양교육’ 36건 순으로 조사됨. ‘기타’는 7건이 접수되었으나 의견이 따로 기재되지 않음.

다. 주민교육 진행 시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23	27.2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242	53.4
고려해보겠다	65	14.3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17	3.8
참여할 의향이 없다	6	1.3
합계	453	100

‘주민교육 진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123명(27.2%)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42명(53.4%)이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함.

‘고려해보겠다’는 65명(14.3%)으로 조사되었으며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17명, ‘참여할 의향이 없다’가 6명으로 조사되었음.

7. 지역주민 자치모임

가. 지역주민 자치모임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102	22.5
필요한 편이다	236	52.1
그저 그렇다	78	17.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2	7.1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1.1
합계	453	100

‘지역주민 자치모임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102명(22.5%)이 ‘매우 필요하다’, 236명(52.1%)이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함.

‘그저 그렇다’는 78명(17.2%)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 32명(7.1%), ‘전혀 필요하지 않다’ 5명(1.1%)이 응답함.

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자치모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자신의 재능을 무료로 나누는 모임	182	21.5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	132	15.6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동아리	155	18.3
공동육아, 양육을 위한 부모 모임	105	12.4
후원, 자원봉사단	107	12.7
청, 장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	61	7.2
주민 간 관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임	88	10.4
기타	16	1.9
합계	846	100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자치모임(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에 846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중 ‘재능기부와 관련된 모임’이 182건(21.5%)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외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동아리’는 155건(18.3%), ‘환경개선 모임’ 132건(15.6%), ‘후원, 자원봉사단’ 107건(12.7%), ‘공동육아, 양육모임’ 105건(12.4%) 순으로 조사됨.(이하 표 참조)

다. 주민자치모임 진행 시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82	18.1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245	54.1
고려해보겠다	82	18.1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24	5.3
참여할 의향이 없다	20	4.4
합계	453	100

‘주민자치모임 진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82명(18.1%)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45명(54.1%)이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함.

‘고려해 보겠다’는 82명(18.1%)으로 나타났으며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24명, ‘참여할 의향이 없다’ 20명으로 조사되었음.

8.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지역주민의 공동체 인식 함양 여부와 주민이 느끼는 하남시의 공동체성, 향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함.

가. 우리 하남시의 공동체 의식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있다	44	9.7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다	169	37.3
보통이다	171	37.7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64	14.1
공동체 의식이 없다	5	1.1
합계	453	100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하남시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결과 44명(9.7%)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있다’고 응답했으며 169명(37.3%)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답함.

‘보통이다’는 171명(37.7%)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64명(14.1%),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5명(1.1%)으로 조사됨.

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

구분	빈도(명)	비율(%)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	29	42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해서	27	39.2
이웃, 세대 간 갈등 팽배	3	4.3
타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음	5	7.3
신도시, 구도심 지역 분리	4	5.8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음	1	1.4
합계	69	100

위 문항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69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29명(42%)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 27명(39.2%)이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함.

그 외 ‘타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음’ 의견은 5명, ‘신도시, 구도심의 지역 분리’ 4명, ‘이웃, 세대간의 갈등 팽배’ 3명,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음’ 1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다.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97	21.4
필요한 편이다	225	49.7
그저 그렇다	100	22.1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	4.9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2.0
합계	453	100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97명(21.4%)이 ‘매우 필요하다’, 225명(49.7%)이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함.

‘그저 그렇다’는 100명(21.4%)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9명으로 조사되었음.

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구분	빈도(건)	비율(%)
주민, 이웃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 실천	157	24.8
주민조직 양성 및 활성화	79	12.5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154	24.3
지역주민 간 교류의 기회 마련	122	19.3
공동체와 관련된 캠페인, 인식개선 활동	85	13.4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제공	26	4.1
기타	10	1.6
합계	633	100

위 문항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322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요한 활동(최대 2개 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633건의 응답이 취합되었음.

응답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주민, 이웃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 실천’ 157건(24.8%),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154건(24.3%), ‘지역주민 간 교류의 기회 마련’ 122건(19.3%), ‘공동체와 관련된 캠페인, 인식개선’ 85건(13%), ‘주민조직 양성 및 활성화’ 79건(12.5%),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제공’ 26건(4.1%)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10건이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9.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참여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 및 활동 욕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함.

가. 자원봉사활동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활동한 적이 없다	106	23.4
과거에 활동했었다	189	41.7
현재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	43	9.5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15	25.4
합계	453	100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6명(23.4%)이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189명(41.7%)이 ‘과거에 활동했었다’라고 응답함.

‘현재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는 43명(9.5%)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115명(25.4%)으로 조사됨.

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47	13.5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40	11.5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	119	34.3
여가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42	12.1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82	23.6
주변(지인, 회사 등)의 권유로	13	3.7
기타	4	1.2
합계	347	100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과거-현재) 347명의 응답자에게 ‘활동의 이유’를 묻자 119명(34.3%)이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라고 응답했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82명(23.6%),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47명(13.5%), ‘여가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42명(12.1%), ‘취업에 필요한 경험’ 40명(11.5%) 순으로 나타남. (이하 표 참조)

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교내 봉사활동으로도 자원봉사 의무시간을 충족할 수 있어서	2	2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	69	65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18	17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9	8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3	3
기타	5	5
합계	106	10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106명의 응답자에게 ‘활동경험이 없는 이유’를 묻자 69명(65%)이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라고 응답했으며 18명(17%)이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함.

그 외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9명,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3명, ‘교내 봉사활동으로도 의무시간을 충족할 수 있어서’ 2명 순으로 응답함. ‘기타’는 5건이 접수되었으나 별도의 의견에 기재되지 않음.

라. 참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110	24
복지관 행정업무 지원(서류정리, 복사, 간단한 문서작성 등)	69	15
정서적 지원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	65	14
교육봉사활동(어르신 스마트기기, 아동·청소년학업지원 등)	53	12
지역사회 환경개선(플로깅, 환경인식 캠페인, 재활용 등)	102	23
어르신재가서비스(밀반찬 배달, 병원진료 동행 등)	26	6
기타	28	6
합계	453	100

‘참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문항에 110명(24%)이 ‘재능나눔 활동’에 응답했으며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102명(23%), ‘복지관 행정업무 지원’ 69명(15%), ‘정서적 지원활동’ 65명(14%), ‘교육봉사활동’ 53명(12%) 순으로 응답함. (이하 표 참조)

10. 후원활동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참여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 및 활동 욕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함.

가. 후원 참여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후원 경험이 있다.	200	44.2
후원한 적이 없다	253	55.8
합계	453	100

‘후원 참여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5.8%(253명)가 ‘후원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4.2%(200명)가 ‘후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나. 후원에 참여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101	50.5
후원에 보람을 느껴서	54	27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	9	4.5
종교적인 이유로	17	8.5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긴급지원, 재해복구)	19	9.5
합계	200	100

‘후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0명에게 ‘후원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101명(50.5%)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54명(27%)이 ‘보람을 느껴서’라고 응답함.

그 외 ‘특정 문제의 해결(긴급지원, 재해복구)’는 19명, ‘종교적인 이유’ 17명, ‘연말정산 세액공제’ 9명 순으로 조사됨.

다. 후원하는데 적당한 금액

구분	빈도(명)	비율(%)
10,000원 미만	61	30.5
10,000~20,000원 미만	93	46.5
20,000~30,000원 미만	26	13
30,000원 이상	18	9
기타	2	1
합계	200	100

‘후원할 때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을 묻은 결과 ‘10,000~20,000원 미만’이 93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0원 미만’ 61명(30.5%), ‘20,000~30,000원 미만’ 26명(13%), ‘30,000원 이상’ 18명(9%) 순으로 조사됨. ‘기타’로는 ‘금액은 상관 없이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견이 있었음.

라. 후원 참여결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인 부담	158	62.5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9	3.6
후원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18	7.1
후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움	15	5.9
후원금 사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42	16.6
개인 신상의 변동(결혼, 이사 등)	9	3.6
기타	2	0.8
합계	253	100

후원한 적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후원 참여결정의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158명(62.5%)이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응답함. 그 외 ‘후원금 사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42명(16.6%), ‘후원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18명(7.1%), ‘후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움’ 15명(5.9%),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개인 신상의 변동’ 각 9명(3.6%)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의견은 따로 기재되지 않음.

11. 가족복지사업 욕구

가정 내에서 고민하는 주된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확인하고, 가족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함. 아래 문항은 ‘2인 이상 가족이 구성된 경우(구성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답자는 388명임.

가. 가정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실직, 구직, 저임금, 과다지출 등)	145	19.9
건강 문제 (본인 및 가족의 장단기 질환, 정신건강 등)	155	21.2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 (부부, 자녀 갈등, 의사소통 부재 등)	68	9.3
가족 부양의 어려움 (노약자, 장애인, 치매 등)	27	3.7
자녀 양육의 어려움 (보육, 성적관리, 방과후지도, 사교육 등)	113	15.5
여가문화의 부족	100	13.7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16	2.2
주거환경의 어려움 (보증금, 좁은 평수 열악한 주거환경 등)	28	3.8
특별한 어려움 없음	78	10.7
합계	730	100

‘가정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문항에 730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 중 ‘건강 문제(본인 및 가족)’가 155건(21.2%)으로 가장 많았음.

‘경제적 어려움’은 145명(19.9%)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 113명(15.5%), ‘여가 문화의 부족’ 100명(13.7%),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 68명(9.3%), ‘주거환경의 어려움’ 28명(3.8%), ‘가족 부양의 어려움’ 27명(3.7%),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16명(2.2%) 순으로 조사됨.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78명(10.7%)으로 조사되었음.

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참고 지냄	75	19.3
혼자 해결함	134	34.5
가족에게 도움 요청	128	33.0
친구 혹은 이웃에게 도움 요청	27	7.0
종교시설에 도움 요청	8	2.1
복지시설에 도움 요청	6	1.5
관공서(주민센터, 시청 등)에 도움 요청	8	2.1
기타	2	0.5
합계	388	100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 방법’을 묻는 문항에 설문 대상의 34.5%(134명)가 ‘혼자 해결함’이라고 응답함. ‘가족에게 도움 요청’은 33%(128명)이며 ‘참고 지냄’ 75명(19.3%), ‘친구 혹은 이웃에게 도움 요청’ 27명(7%), ‘종교시설’, ‘관공서’에 도움 요청은 각 8명, ‘복지시설’에 도움 요청은 6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2건이 접수되었으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다.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최대 2개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학교 등)	108	14.1
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서비스 (문화공연, 체험활동 등)	208	27.2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정보제공, 건강강좌 등)	167	21.8
아동 보육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육아 품앗이, 자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	91	11.9
경제적 지원(후원금, 생필품 지원 등)	147	19.2
정서적 지원(상담, 말벗, 자조모임 등)	42	5.5
기타	2	0.3
합계	349	100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을 묻는 문항에 765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이 27.2%(208건)로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167명(21.8%), ‘경제적 지원’ 147명(19.2%), ‘가족 관계증진 프로그램’ 108명(14.1%), ‘아동 보육 및 양육지원’ 91명(11.9%), ‘정서적 지원’ 42명(5.5%)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2건이 있었으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12.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세대별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알아보고, 현재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함. 문항에 해당하는 세대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세대별로 응답자 수가 다름. (아래 표 참조)

세대구분	응답자 수	비고
아동·청소년	193명	자녀를 둔 보호자도 설문에 참여함.
성인(20세~40세 미만)	131명	
중·장년(40세~65세 미만)	197명	
어르신(65세 이상)	139명	

가.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학업	69	18.3
진로 및 취업	96	25.4
외모	10	2.6
성격	29	7.7
또래 관계	53	14
성(性) (이성 교제, 성적 취향, 신체 변화 등)	13	3.4
비행(흡연, 음주 등)	10	2.6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40	10.6
가족관계(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49	13
기타	9	2.4
합계	378	100

‘본인이 18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193명에게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을 묻은 결과 378건의 응답이 나타남.

가장 많은 응답은 ‘진로 및 취업’이 96명(25.4%)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 69명(18.3%), ‘또래관계’ 53명(14%), ‘가족관계’ 49명(13%),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40명(10.6%) 순으로 조사됨.(이하 표 참조) ‘기타’는 9건이 있었으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2) 방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105	27.7
컴퓨터, 핸드폰	91	24
집에서 휴식	60	15.8
친구와의 놀이활동	38	10
유흥시설 이용(노래방 등)	5	1.3
TV 시청	37	9.8
독서(만화책 포함)	23	6.1
동아리 활동	2	0.5
아르바이트	1	0.3
종교활동	4	1.1
문화관람(영화, 연극 등)	6	1.6
기타	7	1.8
합계	379	100

‘방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학원 및 방과 후 학교’가 105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핸드폰’ 91건(24%), ‘집에서 휴식’ 60건(15.8%), ‘친구와의 놀이 활동’ 38건(10%), ‘TV 시청’ 37건(9.8%) ‘독서’ 23건(6.1%)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하 표 참조)

3)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미만인 경우)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인성 프로그램(나눔 교육,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	63	18.9
멘토링 프로그램	32	9.6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숲 체험, 숲 놀이 등)	57	17.1
문화체험 활동(아동놀이, 공연관람, 음악회 등)	83	24.9
자원봉사 프로그램	14	4.2
취미·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33	9.9
개별상담 프로그램(가족 및 친구관계, 성격 등)	18	5.4
학습지원프로그램(공부방 개선사업, 학습지 지원 등)	23	6.9
아동권리증진 프로그램	5	1.5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5	1.5
기타	1	0.3
합계	334	100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미만**’인 응답자에게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334건의 응답이 있었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프로그램은 ‘문화체험활동(아동놀이, 공연 등)’으로 응답자의 24.9%(83명)를 차지했으며 ‘인성 프로그램(나눔교육, 감정조절 등)’이 18.9%(63명),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숲체험, 숲놀이 등)’이 17.1%(57명)로 조사되었음.

그 외 ‘취미·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이 33명(9.9%), ‘멘토링 프로그램’ 32명(9.6%), ‘학습지원프로그램(공부방 개선사업, 학습지 지원 등)’ 23명(6.9%), ‘개별상담 프로그램(가족 및 친구관계, 성격 등)’ 18명(5.4%)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이하 표 참조)
‘기타’는 1건이 있었으나 의견이 기재되지 않음.

4)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이상인 경우)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자원봉사 프로그램	27	9.7
학습지원프로그램(공부방 개선사업, 학습지 지원 등)	50	17.9
직업체험 프로그램	59	21.1
교육/여가프로그램(외국어, 컴퓨터 등)	50	17.9
동아리 활동	16	5.7
문화프로그램(공연관람, 음악회 등)	39	14.0
고민상담(가족 및 친구관계, 이성교제, 성격 등)	27	9.7
사회참여 프로그램 (정치참여, 캠페인 활동, 권익증진 등)	6	2.2
기타	5	1.8
합계	279	100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이상’인 응답자에게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279건의 응답이 나타남.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59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원프로그램’과 ‘교육/여가 프로그램’이 각 50건(17.9%)으로 조사되었음.

그 외 ‘문화프로그램’ 39건(14%), ‘자원봉사프로그램’, ‘고민상담’ 각 27건(9.7%), ‘동아리 활동’ 16건(5.7%), ‘사회참여 프로그램’ 6건(2.2%) 순으로 응답하였음. ‘기타’는 5건의 응답이 있었으나 별도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음.

5)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시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179	92.7
없다	14	7.3
합계	193	100

‘3)과 4) 문항에 관련된 사업 진행’ 시 참여할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179명(92.7%)이 ‘있다’, 14명(7.3%)이 ‘없다’라고 응답함.

6)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시간이 없다	7	50
참여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	1	7.1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	3	21.4
참여방법을 모른다	3	21.4
기타	0	0
합계	14	100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시간이 없다’가 7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와 ‘참여 방법을 모른다’가 각 3명, ‘참여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가 1명으로 조사됨.

7)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하기 편한 시간

구분	빈도(명)	비율(%)
평일 오전	6	3.1
평일 오후	87	44.8
평일 저녁	31	15.9
주말 오전	36	18.4
주말 오후	32	16.2
기타	1	0.5
합계	193	100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하기 편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 ‘평일 오후’가 87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 오전’ 36명(18.4%), ‘주말 오후’ 32명(16.2%), ‘평일 저녁’ 31명(15.9%), ‘평일 오전’ 6명(3.1%)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1건이 응답이 있었으나 별도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음.

나. 성인(20세~40세 미만) 복지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주거 및 식생활의 어려움	34	13.3
경제적인 어려움(구직, 실직, 과다지출 등)	49	19.1
가족관계(부모, 부부, 자녀 등)	20	7.8
여가문화 취미생활 부족	55	21.5
건강문제(신체적, 정신적)	35	13.7
진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	40	15.6
자녀양육	20	7.8
기타	3	1.2
합계	256	100

‘성인(20세~40세 미만)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를 조사한 결과 256건의 응답이 있었음. ‘여가문화, 취미생활 부족’이 55건(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49건(19.1%), ‘진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 40건(15.6%), ‘건강문제’ 35건(13.7%), ‘주거 및 식생활의 어려움’ 34건(13.3%),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이 각 20건(7.8%) 순으로 조사됨.

2) (1인 가구만 해당)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식생활 어려움	13	12
심리, 정서적 어려움(고독, 우울, 스트레스 등)	28	25.9
사회적관계 어려움(대인관계 등)	19	17.6
경제적인 어려움	20	18.5
주거환경	14	13
문화, 여가의 어려움	10	9.3
기타	4	3.7
합계	108	100

성인 응답자 중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에 108건의 응답이 발생함. 이 중 ‘심리, 정서적 어려움(고독, 우울 등)’이 28건 (25.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20건(18.5%)으로 조사됨.

그 외 ‘사회적 관계 어려움’ 19건(17.6%), ‘주거환경’ 14건(13%), ‘식생활 어려움’ 13건 (12%), ‘문화, 여가의 어려움’ 10건(9.3%) 순으로 응답이 있었음. ‘기타’는 4건이 있었으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3) 위와 같은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의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꼭 참여하겠다	27	20.6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82	62.1
그저 그렇다	15	11.3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된다	6	4.5
참여하지 않겠다	1	0.7
합계	131	100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82명(62.1%)이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27명(20.6%)이 ‘꼭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함. ‘그저 그렇다’는 15명(11.3%)이었으며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된다’ 6명(4.5%), ‘참여하지 않겠다’는 1명(0.7%)으로 조사되었음.

다. 중·장년(40세~65세 미만) 복지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양육	81	20.9
경제적인 어려움	49	12.7
여가, 문화, 취미생활 부족	64	16.5
경력직의 단절	41	10.6
취업의 어려움	24	6.2
가족관계(부부, 자녀 등)	33	8.5
불안, 스트레스 및 소진	37	9.6
은퇴 이후의 삶	43	11.1
노인부양(부모부양, 부양비, 치매 등)	14	3.6
기타	1	0.3
합계	387	100

중·장년 197명의 응답자에게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을 물은 결과 387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 중 ‘자녀 양육’이 81건(20.9%)으로 가장 많았음. ‘여가, 문화, 취미생활의 부족’은 64건(16.5%), ‘경제적인 어려움’은 49건(12.7%), ‘은퇴 이후의 삶’은 43건(11.1%), ‘경력직의 단절’ 41건(10.6%) ‘불안, 스트레스 및 소진’ 37건(9.6%) 순으로 조사됨.(이하 표 참조)

2) 필요한 혹은 참여하고 싶은 복지서비스·프로그램 (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 양육 교육·부모-자녀 프로그램	66	17
경제적 지원(생필품, 식료품, 후원금 등)	41	10.5
여가, 문화,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	82	21.1
취업과 관련된 교육·연계 프로그램	66	1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등	19	4.9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모임 등	38	9.8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46	11.8
주민과 교류하고 활동하는 자조모임	11	2.8
건강증진 프로그램	20	5.1
합계	389	100

‘중·장년에게 필요한 혹은 참여하고 싶은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묻은 결과, 복수 응답으로 총 389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중 ‘여가·문화·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82건(21.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

‘자녀 양육 교육 및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은 각 66건(17%)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46건(11.8%), ‘경제적 지원(생필품, 식료품, 후원금 등)’ 41건(10.5%),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모임 등’ 38건(9.8%), ‘건강증진 프로그램’ 20건(5.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등’ 19건(4.9%), ‘주민과 교류하고 활동하는 자조모임’ 11건(2.8%) 순으로 조사되었음.

3) 위와 같은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의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꼭 참여하겠다	60	30.5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127	64.5
그저 그렇다	2	1.0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된다	8	4.1
참여하지 않겠다	0	0
합계	197	100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가 127명(64.5%), ‘꼭 참여하겠다’ 60명(30.5%)으로 조사됨. ‘그저 그렇다’는 2명이며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된다’는 8명,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없었음.

라. 어르신(만 65세 이상) 복지욕구 조사

1)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근로능력 상실, 퇴직, 부채 등)	96	38.1
외로움과 고독감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고독사에 대한 불안 등)	36	14.3
건강 문제 (만성질환, 신체적 질병, 고혈압, 당뇨 등)	82	32.5
일상생활의 어려움 (식사, 빨래, 청소, 설거지 등)	5	2
여가·문화 프로그램 부족	13	5.2
가족 간의 갈등 (가족과의 단절,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6	2.4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전자기기 사용 등)	10	4
기타	4	1.6
합계	252	100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9명에게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최대 2개 복수 응답)’을 물은 결과 252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96건(38.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건강 문제’ 82건(32.5%)이 있었으며 ‘외로움과 고독감’ 36건(14.3%), ‘여가·문화 프로그램 부족’ 13건(5.2%),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10건(4%), ‘가족 간의 갈등’ 6건(2.4%), ‘일상생활의 어려움’ 5건(2%) 순으로 조사 되었음. ‘기타’ 응답에 대한 의견은 기재되지 않았음.

2)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36	16.7
이웃·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7	12.5
가족, 친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60	27.8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10	4.6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	80	37
기타	3	1.4
합계	216	100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가 80건(3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

그 외 ‘가족, 친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가 60건(27.8%)으로 2순위며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36건(16.7%), ‘이웃·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7건(12.5%),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10건(4.6%)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응답은 3건이 있었으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3)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인 지원	100	38.5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말벗, 방문 등)	22	8.5
의료서비스, 건강정보 제공	89	34.2
일상생활 지원(청소, 빨래 등)	9	3.5
여가/취미활동 프로그램	23	8.8
손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	4	1.5
심리상담 프로그램	3	1.2
경로잔치, 나들이 등 특별활동	8	3.1
기타	2	0.8
합계	260	100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100건(38.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의료서비스, 건강정보제공’이 89건(34.2%)으로 2순위로 집계됨. 그 외 ‘여가/취미활동 프로그램’이 23건,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 22건, ‘일상생활 지원’ 9건, ‘경로잔치, 나들이’ 8건 순으로 나타남.(이하 표 참조)

13. 장애인 복지욕구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행함. 해당 문항은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66명이 응답하였음.

가. 응답 주체 및 장애가 있는 분의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23	34.8	남자	33	50
보호자	43	65.2	여자	33	50
합계	66	100	합계	66	100

‘설문조사의 응답 주체’를 묻은 결과 ‘본인’ 응답 23명, ‘보호자 응답’은 43명으로 조사되었음. ‘장애가 있는 분의 성별’을 묻는 문항에는 남·녀 동일하게 33명으로 조사됨.

나. 장애가 있는 분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5~9세	4	6.1
10~14세	9	13.6
15~19세	1	1.5
20~24세	2	3
25~29세	1	1.5
30~34세	4	6.1
35~39세	2	3
40~44세	2	3
45~49세	2	3
50~54세	22	33.3
60~64세	2	3
65~69세	2	3
70~74세	4	6.1
75~79세	3	4.5
80~84세	4	6.1
85세 이상	2	3
합계	66	100

‘장애가 있는 분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54세’가 22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14세’ 9명(13.6%), ‘5~9세’, ‘30~34세’, ‘70~74세’ 각 4명(6.1%), ‘75~79세’ 3명(4.5%), ‘15~19세’는 1명(1.5%)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하 다른 연령대는 모두 2명(3%)으로 응답함.

다. 장애정도 및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경증 장애	28	42.4
중증 장애	38	57.6
합계	66	100

‘장애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증 장애’가 38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증 장애’는 28명(42.4%)으로 조사됨. ‘장애 유형’도 함께 조사했으나 응답자가 장애 정도만 기재하여 값을 산출하기 어려움.

라. 지역 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최대 2개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24	20.5
취업 기회 제한	16	13.7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18	15.4
장애 치료기관의 부족	22	18.8
장애 가족으로 인한 양육 및 보호문제	17	14.5
문화 여가 프로그램 부족	11	9.4
주, 야간 보호시설 및 생활시설의 부족	4	3.4
기타	5	4.3
합계	117	100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24명(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장애 치료기관의 부족’이 22명(18.8%), 그 외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18명(15.4%), ‘장애 가족으로 인한 양육 및 보호문제’ 17명(14.5%), ‘취업기회 제한’ 16명(13.7%),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족’ 11명(9.4%), ‘주·야간 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부족’ 4명(3.4%)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 응답은 5건이었으나 별도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음.

마.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혹은 기관, 단체)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 및 친척	42	63.6
친구 또는 이웃	2	3
스스로 해결	18	27.3
종교단체	1	1.5
사회복지기관	1	1.5
각 동 주민센터	2	3
합계	66	100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혹은 기관, 단체)’을 묻는 문항에 ‘가족 및 친척’이 63.6%(4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 응답이 18명(27.3%)으로 조사됨.

‘친구 또는 이웃’, ‘각 동 주민센터’는 각 2명(3%)이 응답했으며, ‘종교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은 각 1명이 응답하였음.

바.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최대 2개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개별치료 프로그램(언어, 인지, 특수체육 등)	33	50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부모·가족, 심리상담 등)	13	19.7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나이, 유형 등)	7	10.6
장애, 비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	7	10.6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재활, 취업 등)	4	6.1
기타	2	3
합계	117	100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묻는 문항에 ‘개별치료 프로그램’이 33명(5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13명(19.7%)으로 2순위를 기록함.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제공’과 ‘장애, 비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은 각 7명(10.6%)이 응답했으며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4명(6.1%)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5명이 선택했으나 별도의 의견에 기재되지 않음.



IV

-

결론 및 제언

1.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3. 주민교육의 필요성과 듣고 싶은 강좌
 4. 주민자치모임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
 5. 공동체 의식 및 강화를 위한 활동
 6. 자원봉사활동, 후원
 7. 가족복지사업 욕구
 8.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9. 장애인 복지욕구
- 

IV. 결론 및 제언

1.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가. 복지관 인지도

‘복지관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453명 중 354명이 복지관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고, 84명이 복지관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기관이 하남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성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사대상 일부가 복지관 이용자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복지관을 인지하고 있는 값’이 형성되어있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복지관을 알게 된 계기’로는 ‘이웃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주민이 다수 있었으며(80명) 인터넷과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응답(84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관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웃의 소개’ 또한 맘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되었는지도 향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육구조사 결과를 향후 홍보활동 계획에 반영해 더 많은 이웃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인적·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복지관 이용경험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347명이 ‘현재 혹은 과거에 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육구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복지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용했던 혹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묻는 문항에는 총 15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347명의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6.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목적이 되는 주 이용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 ‘매우 만족’으로 표현되는 ‘긍정 응답’은 74.3%로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인 부정 응답은 44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교육문화 강좌’로 전체 응답의 78.7%가 긍정 응답이었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청장년 프로그램’으로 전체 만족도 보다 7.9% 낮은 64.6%의 긍정응답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보다 ‘보통’ 응답이 많았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괏값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위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질적 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한 이유

‘복지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상위 3개 선택지는 ‘프로그램 이용비가 무료거나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99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접근성이 좋아서’ 76명, ‘직원이 친절함’ 7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이나 편의·이용시설, 문화·놀이 체험활동 등에 소비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점이 이용에 큰 만족도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1층부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태도 또한 높은 만족도의 요인이다.

반대로 ‘복지관에 불만족한 이유’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적어서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44명,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40명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가장 큰 불만족 사유인 희망 프로그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이나 특정 지역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차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시간과 복지관 대관, 어린이집 하원 등이 겹칠 때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어르신을 주차장에 배치하여 정리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105명에게 사유를 확인한 결과 상위 3순위 응답은 ‘복지관에 대해 잘 몰라서’ 41명(39%), ‘운영시간이 개인 일정과 맞지 않아서’ 25명, ‘접근성이 떨어져서’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각 1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시간과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울 때는 복지관 이용을 독려할 방법이 제한적이나 ‘복지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파급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관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신도시, 농촌(외곽)지역에 방문하여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만나기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을 응답자에게 복수 응답(최대 2개)으로 질문한 결과,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급식, 보건, 의료, 경제적 지원을 통해 물리적, 심리, 정서적으로 관리’ 역할이 189건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사업’이 155건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 갈등 문제해결, 가족관계증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생활 지원’이 각 124건으로 조사되었다.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이 갖는 고유한 업무이자 목적 중 하나로 발굴과 관리, 연계, 지원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조성이 필요하다.

예상외의 결과로 ‘상담사업’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이 많고, 이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선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세부적인 욕구 수렴이 필요해 보이며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형성된 ‘가족’이라는 집단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갈등 해소와 관계 증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와 특성, 보편적인 욕구와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후 개별,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향후 복지관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위 사업 모두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 및 체계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주민교육의 필요성과 듣고 싶은 강좌

‘주민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453명 중 390명이 긍정적(필요하다)으로 응답했으며 필요한 교육이 개설되면 365명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해 주민교육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물었을 때(최대 2개 복수 응답) ‘취미 관련 교육’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교육’ 179건, 3순위는 ‘자녀 육아, 양육 관련 교육’이 131건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욕구조사에서도 ‘취미 관련 교육’이 많은 응답을 받아 그동안 관련 교육을 확대했다.

다만, 기존에 진행한 취미활동 교육은 단순한 체험, 만들기, 이론교육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와 ‘자녀 육아, 양육 관련 교육’ 또한 욕구조사 때마다 많은 응답을 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주민의 욕구를 근거로 ‘자녀 육아, 양육 관련 교육’을 확대했으며 이론, 실습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다만,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교육은 미진하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세부적인 주제를 묻은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대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괏값을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 이 값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선 카테고리별 세부적인 주제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4. 주민자치모임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

‘지역주민 자치모임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338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327명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주민자치모임 조직 및 확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모임’의 유형(최대 2개 복수 응답)으로는 ‘재능기부 활동’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동아리’(155명),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132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은 ‘이미용(아름지기) 봉사단’, ‘손사랑나눔 봉사단’, ‘보따리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의 활동 욕구가 높은 만큼 홍보를 통한 신규 단체(조직)를 모집하거나 새롭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동아리’의 경우 2022년 신규 동아리 4개를 선발하여 진행했고, 결과와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다.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리 확대나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참여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으나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 결괏값을 참여율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자치모임 모집이나 신규 조직 시 대상에 따라 활동 일정, 시간 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강화를 위한 활동

최근 하남시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된 인구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공간과 편의·이용시설이 조성되어 지역적 분리가 염려된다.

이에 복지관은 하남시민의 공동체 의식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4개의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하남시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453명에게 물은 결과 213명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은 69명, ‘보통이다’는 171명이 응답해 ‘주민이 느끼는 하남시의 공동체 의식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가 29명,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해서’ 2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은 하남시의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가장 많은(2021년 기준 아파트 점유 63.7%)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¹⁴⁾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322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활동’에는 ‘주민·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이 1순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2순위, ‘지역주민 간 교류의 기회 마련’이 3순위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현재 주민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향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아파트 중심 주거’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거대한 성 같은 아파트는 모든 것이 입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단지 내에서도 개인의 공간은 독립적으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상호작용이나 교류, 공동의 연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다.¹⁵⁾

이러한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민이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이 한 공간에 쉽게 응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 즉, 아파트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지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한 장소만 정해지면 모든 하남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공간에 따라 수용인원이 정해지며 규모가 큰 만큼 인력이나 예산 투입도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할 때, 지역사회는 더 큰 자생력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복지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4) 제9회 사회조사보고서, 하남시(2021)

15)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서강오(2020)

6. 자원봉사활동, 후원

가. 자원봉사활동

‘현재 혹은 과거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7명으로 많은 인원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보람을 느껴서’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2순위(82명),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3순위(47명), ‘의미 있는 여가생활’이 4순위(42명)로 조사되었다.

위 응답을 볼 때,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우리 이웃과 하남시를 위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바쁜 일상’이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가 2순위로 조사되었다.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재능 나눔 활동’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환경개선’ 2순위(102명), ‘행정업무 지원’(69명) 3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활동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정보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반대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자원봉사자가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홈페이지 지나 SNS에 봉사활동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정보공유 글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하는 활동가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시작은 의무시간 충족이나 이력을 위한 것이었어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활동의 공급이다. 재능 나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봉사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

나. 후원 참여

조사 결과 ‘후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0명(44.2%), ‘후원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253명(55.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된 하남시 및 경기도 전체 ‘기부 경험’보다 높은 수치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후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 분	기부 경험 있음	후원금 기부 횟수						기부 경험 없음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모금단체(기관), 물품 후원단체를 통한 후원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기타	
경기도	17.8	6.8	5.9	9.0	8.2	6.6	5.5	82.2
2019	19.9	8.1	7.8	9.0	7.0	6.2	4.2	80.1
2021	13.7	6.7	7.7	8.8	10.3	7.6	0.0	86.3

〈그림8〉 하남시 기부 경험 여부¹⁶⁾

‘후원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가 101명(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원에 보람을 느껴서’ 54명,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명, ‘종교적인 이유’ 17명, ‘연말정산 세액공제’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후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불신’ 42명, ‘후원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18명, ‘후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움’ 15명,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및 ‘개인 신상의 변동’ 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 결과들은 향후 복지관의 후원 개발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주민에게는 소액으로도 우리 사회와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불신은 후원금·품 사용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를 활용한 결과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알려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후원을 위해 홈페이지 후원 안내에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SNS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간소화되는 과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후원자가 많은 만큼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와 연계한 지원가정(개인)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을 잠재적인 후원자와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원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방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해보고 추진전략과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가족복지사업 욕구

‘가정에서 고민하는 주된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를 묻는 문항에 ‘건강 문제(본인 및 가족)’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145건, ‘자녀 양육의 어려움’ 113건, ‘여가문화의 부족’ 100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사에서는 ‘여가문화 활동’이 1순위(208건), ‘건강증진 프로그램’ 2순위(167건), ‘경제적 지원’ 3순위(147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4순위(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응답이 많았는데, 이 항목에 대한 접근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지, 구성원의 건강 혹은 질병으로 인한 염려인지, 이 문제가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특히 이 선택지는 이번 조사 때 처음으로 추가된 선택지이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응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16) 제9회 사회조사보고서, 하남시(2021)

2020년 욕구조사 때와 동일하게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여가문화의 부족’은 높은 순위를 보였다.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같은 유형의 응답이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와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동일한 혹은 비슷한 욕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 사각지대 등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 단위의 접근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및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는 복지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가족관계증진,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부모 교육을 제공했으며 외부지원사업인 ‘오늘은 노는 날’, ‘인성의 조건’을 통해 활동 중 자연스럽게 놀 권리와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가정 내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해결 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혼자 해결함’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에게 도움 요청’ 2순위(128명), ‘참고 지남’ 3순위(75명) 순으로 조사되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개인 또는 구성원끼리 해결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가족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더불어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기관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유형 및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고 지내는 세부적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8. 세대별 복지사업 욕구

가. 아동·청소년 복지 욕구(응답자: 193명)

‘아동·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에서 응답이 높은 4개 항목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이 2순위(69건), ‘또래 관계’ 3순위(53건), ‘가족관계’ 4순위(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0년에 진행한 욕구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위 조사는 해당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순수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결괏값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미만’인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활동’ 83건, ‘인성 프로그램’ 63건,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 57건, ‘취미 교육 및 직업체험’ 33건, ‘멘토링 프로그램’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14세 이상’인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59건, ‘학습지원프로그램’, ‘교육·여가 프로그램’ 각 50건, ‘문화프로그램’ 39건, ‘자원봉사 프로그램’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92.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위 연령대별 필요한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분석해볼 때 14세 미만 아동은 직접 체험하며 경험을 쌓고, 사회적·정서적인 발달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면 14세 이상은 미래를 위한 진로 탐구의 기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 연령대별 사업 참여도와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편한 시간’에 대한 응답은 ‘평일 오후’가 44.8%로 가장 많았고, ‘주말 오전’ 18.4%, ‘주말 오후’ 16.2%, ‘평일 저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빈도(명)로만 비교할 때는 평일이 124명, 주말이 68건이었다.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학업으로 바쁜 만큼 프로그램 진행에 응답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성인(20세~40세 미만) 복지 욕구(응답자: 131명)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어려움이나 겪고 있는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를 조사한 결과 상위 항목(4순위)으로 ‘여가문화 취미생활 부족’이 55건, ‘경제적인 어려움’ 49건, ‘진로·취업 어려움’ 40건, ‘건강 문제’ 35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28건, ‘경제적인 어려움’ 20건, ‘사회적 관계’ 19건, ‘식생활의 어려움’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2.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이 중 62.1%가 ‘여건이 되면 참여’라는 조건부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 결과가 참여를 보장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조사 결과에 우선적으로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성인, 특히 청년은 경제활동을 한창 영위할 나이이며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먼저 도움을 청하기보단 혼자서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해 선제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세~40대 미만의 세대가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잠재적인 위기 대상 발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욕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의 문제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성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1인 가구가 ‘심리, 정서적 어려움(고독, 우울, 스트레스)’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만큼 이들을 위해 관계망 형성, 정서적지지, 심리상담, 스트레스 및 소진 완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 중·장년(40세~65세 미만) 복지 욕구(응답자: 197명)

‘중·장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 문항의 상위 4개 항목은 ‘자녀 양육’ 81건, ‘여가·문화·취미생활 부족’ 64건, ‘경제적 어려움’ 49건, ‘은퇴 이후의 삶’ 43건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위 4개 프로그램(최대 2개 복수 응답)’으로는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82건, ‘자녀 양육 교육 및 부모-자녀 프로그램’, ‘취업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각 66건,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6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보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중·장년층의 욕구는 비교적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가정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이 등으로 개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여가·문화·취미’에 대한 욕구도 보인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 노후’ 불안감을 감지하거나 고민하는 비율이 높다.

뚜렷한 욕구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통 중장년은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자의 역할’ 또는 ‘예비 노년층’의 입장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장년, 그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비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 의지는 매우 높다.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긍정응답은 94.5%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이는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들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효과성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하여 중장년만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라. 어르신(65세 미만) 복지 욕구(응답자: 139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최대 2개 복수 응답)’를 조사한 결과 상위 4개 응답으로 ‘경제적 어려움’ 96건, ‘건강 문제’ 82건, ‘외로움과 고독감’ 36건, ‘여가·문화 프로그램 부족’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최대 2개 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 100건, ‘의료서비스·건강정보제공’ 89건, ‘여가·취미활동’ 23건,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보편적인 문제이자 욕구이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지원금 외 수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사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의 경제력과 상황에 따른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복지관 사업을 통한 간단한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소일거리 마련 등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외로움과 고독’ 문제해결을 위해선 복지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한 어르신은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고독사를 들 수 있는데 2020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수는 1,145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⁷⁾

위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트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거나 참는다’(80명) 라고 응답했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복지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경제적 어려움 및 외로움·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과 ‘의료서비스·건강정보’, ‘여가·취미활동’도 누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9. 장애인의 복지 욕구 (응답자: 66명)

조사의 주체는 ‘장애를 지닌 본인’ 23명, ‘보호자’ 43명이며 ‘장애가 있는 분의 성별’은 남·여 모두 33명으로 같다.

연령대를 볼 때 50세~54세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5세~19세 미만) 14명, 성인(20세~40세 미만) 13명, 중장년(40세~65세 미만) 28명, 65세 이상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로는 경증 42.4%, 중증 57.6%로 조사되었다.

‘지역 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최대 2개 복수 응답)’에 대한 상위 4개 항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24건, ‘장애 치료기관의 부족’ 22건,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18건, ‘장애 가족으로 인한 양육 및 보호 문제’ 17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개별치료 프로그램’ 33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13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식개선’이 각 7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필요한 프로그램’ 조사의 경우 장애아동치료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남시의 장애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 인구는 11,832명으로 2019년 대비 8.9%가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인은 12%가 증가했다.¹⁸⁾

17)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보건복지부(2020)

18) KOSIS 시군구별, 장애 정도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2019~2021)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지닌 삶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인식개선,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시점이며,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하남시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V

-

부 록

2022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주민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한 하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남시민의 복지 욕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향후 복지사업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남시의 복지증진을 위한 솔직한 의견을 기대하며, 소중한 응답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 은 주

☎ 문 의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031)790-2945

조사일시 : 2022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 다음 설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세	
거주지역	① 신장1동 ② 신장2동 ③ 덕풍1동 ④ 덕풍2동 ⑤ 덕풍3동 ⑥ 천현동 ⑦ 감북동 ⑧ 풍산동 ⑨ 춘궁동 ⑩ 초이동 ⑪ 미사1동 ⑫ 미사2동 ⑬ 위례동 ⑭ 감일동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기타()			
가족형태	① 1인 가구 ② 부부 ③ 부부+자녀 ④ 부모+부부 ⑤ 조부모+부모+자녀 ⑥ 한부모+자녀 ⑦ 조부모+손자녀 ⑧ 기타			
경제적 수준	① 일반가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③ 차상위 ④ 저소득 ⑤ 잘 모름			
동거 가족 수 (본인포함)	① 1명(1인가구)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경제활동	① 외벌이 ② 맞벌이 ③ 해당 없음			
하남시 거주기간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다음은 복지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위치정도는 알고 있다.
 - ③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 ④ 가족이나 본인이 이용해 본 적이 있다.
 - ⑤ 사업,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

2.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직접 방문
 - ② 인터넷 검색을 통해
 - ③ SNS를 통해(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등)
 - ④ 홍보물(소식지, 포스터 등)
 - ⑤ 직원의 안내를 통해
 - ⑥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 ⑦ 이웃의 소개
 - ⑧ 지나가다 건물을 보고
 - ⑨ 기타 ()

3. 귀하는 본 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이용하고 있다.
→ 4번 문항 응답
 - ② 과거에 이용했다.
→ 4번 문항 응답
 - ③ 이용한 적이 없다.
→ 7번 문항 응답

4. 이용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표기(✓)해주세요

연번	프로그램명	이용여부 표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가족관계증진교육 (부모교육, 아빠교육 등)						
②	가족문화행사 (공연, 어린이날 행사 등)						
③	아동·가족 치료교육센터 (언어, 놀이, 인지, 미술 등)						
④	1인 가구 지원 사업 (같이밥, 이웃이음 등)						
⑤	교육문화 강좌 (아동·성인, 어르신 한글교실)						
⑥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결연후원, 사례관리, 밑반찬지원 등)						
⑦	휠체어 대여						
⑧	자원봉사활동(개인·단체)						
⑨	어르신 대상 서비스 (아·미용, 스마트교육, 경서지원)						
⑩	지역축제, 행사, 바자회 등						
⑪	청장년 프로그램 (홍보서포터즈, 멘토링 등)						
⑫	어르신 일자리						
⑬	지역주민 동아리						
⑭	경기먹거리 그랑드림						
⑮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 취미·소양, 전문교육 등)						
⑯	기타()						

4-1. 만약 프로그램에 불만족하셨다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프로그램 번호	사유
------------	----

- 87 –

9.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자녀육아, 양육 관련 교육 ② 경제 관련 교육
③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④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교육
⑤ 취미 관련 교육(공예, 요리, 소품 만들기 등) ⑥ 관계, 소통 관련 교육
⑦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주민조직, 마을 만들기 등) ⑧ 사회복지 관련교육
⑨ 기타()
11. 주민교육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②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고려해보겠다.
④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⑤ 참여할 의향이 없다.
12.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 자치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어떠한 자치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자신의 재능을 무료로 나누는 모임 ②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
③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동아리 ④ 공동육아·양육을 위한 부모 모임
⑤ 후원·자원봉사단 ⑥ 청·장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
⑦ 주민 간 관계·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임 ⑧ 기타()
14. 주민자치모임을 조직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②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고려해보겠다.
④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⑤ 참여할 의향이 없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5. 우리 하남시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있다. ②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⑤ 공동체 의식이 없다.

→ 16번 문항 응답

16. (④, ⑤에 응답한 경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오

- ①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 ②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해서 ③ 이웃·세대 간 갈등 팽배
④ 타인을 생각할 여력이 없음 ⑤ 신도시·구도심 지역 분리 ⑥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음
⑦ 기타()

17.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18번 문항 응답 → 18번 문항 응답 → 18번 문항 응답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활동이 필요한 경우)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주민·이웃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 실천 ② 주민조직 양성 및 활성화

③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④ 지역주민 간 교류의 기회 마련

⑤ 공동체와 관련된 캠페인, 인식개선 활동 ⑥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제공

⑦ 기타()

다음은 자원봉사·후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 귀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0번 문항 응답 | ② 과거에 활동했었다.
→ 20번 문항 응답 |
| ③ 현재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
→ 20번 문항 응답 | ④ 활동한 적이 없다.
→ 21번 문항 응답 |

20. **(활동 경험이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교 의무시간, 실업급여 조건 충족 등) | ②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
| ③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 | ④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
| ⑤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 ⑥ 주변(지인, 회사 등)의 권유로 |
| ⑦ 기타() | |

21.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교내활동으로도 자원봉사 의무시간을 충족
할 수 있어서 | ②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 |
| ③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 ④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
| ⑤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 ⑥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 ⑦ 건강,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서 | ⑧ 기타() |

2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 | |
|-------------------------------------|--|
| ①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 |
| ② 복지관 행정업무 지원(서류정리, 복사, 간단한 문서작성 등) | |
| ③ 정서적 지원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 | |
| ④ 교육봉사활동(어르신 스마트기기, 아동·청소년 학업지원 등) | |
| ⑤ 지역사회 환경개선(플로깅, 환경인식 캠페인, 새 활용 등) | |
| ⑥ 어르신 재가서비스(밀반찬 배달, 병원진료 동행 등) | |
| ⑦ 기타() | |

23. 귀하는 후원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24번 문항 응답

② 없다.

→ 25번 문항 응답

24. **(경험이 있다면)** 후원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② 후원에 보람을 느껴서

③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

④ 종교적인 이유로

⑤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⑥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긴급지원, 재해복구 등)

⑦ 기타()

25. **(경험이 있다면)** 후원하는데 적당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① 10,000원 미만

② 10,000원 ~ 20,000원 미만

③ 20,000원 ~ 30,000원 미만

④ 30,000원 이상

⑤ 기타()

26. **(후원 경험이 없다면)** 귀하의 후원 참여결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부담

②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③ 후원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④ 후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움

⑤ 후원금 사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⑥ 개인 신상의 변동(결혼, 이사 등)

⑦ 기타()

다음은 가족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7. 귀하의 가정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
| ① 경제적 어려움
(실직, 구직, 저임금, 과다지출 등) | ② 건강문제
(본인 및 가족의 장단기 질환, 정신건강 등) |
| ③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
(부부갈등, 자녀갈등, 의사소통부재 등) | ④ 가족 부양의 어려움
(노약자, 장애인, 치매 등) |
| 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보육, 성적관리, 방과후지도, 사교육 등) | ⑥ 여가문화의 부족 |
| ⑦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 ⑧ 주거환경의 어려움
(보증금, 좁은 평수, 열악한 주거환경 등) |
| ⑨ 특별한 어려움 없음 | |

28. 귀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 | | | |
|----------------------------|--------------|--------------|
| ① 참고 지냄 | ② 혼자 해결함 | ③ 가족에게 도움요청 |
| ④ 친구 혹은 이웃에게 도움요청 | ⑤ 종교시설에 도움요청 | ⑥ 복지시설에 도움요청 |
| ⑦ 관공서(주민센터, 시청 등)에
도움요청 | ⑧ 기타 | |

29. 귀하의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학교 등)
- ② 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서비스(문화공연, 체험활동 등)
- ③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건강정보제공, 건강강좌 등)
- ④ 아동 보육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육아품앗이, 자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
- ⑤ 경제적 지원(후원금, 생필품 지원 등)
- ⑥ 정서적 지원(상담, 말벗, 자조모임 등)
- ⑦ 기타()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응답해주세요

30. 귀하가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
| ① 학업 | ② 진로 및 직업 |
| ③ 외모 | ④ 성격 |
| ⑤ 또래 관계 | ⑥ 성(性) (이성교제, 성적취향, 신체변화 등) |
| ⑦ 비행(흡연, 음주 등) | ⑧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
| ⑨ 가족관계(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 ⑩ 기타() |

31. 방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
|----------------|------------------|----------|
| ①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 ② 컴퓨터, 핸드폰 | ③ 집에서 휴식 |
| ④ 친구와의 놀이 활동 | ⑤ 유흥시설 이용(노래방 등) | ⑥ TV 시청 |
| ⑦ 독서(만화책 포함) | ⑧ 동아리 활동 | ⑨ 아르바이트 |
| ⑩ 종교 활동 | ⑪ 문화관람(영화, 연극 등) | ⑫ 기타() |

32. (자녀 혹은 자신이 14세 미만인 경우)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인성 프로그램(나눔 교육,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
- ② 멘토링 프로그램
- ③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숲 체험, 숲 놀이 등)
- ④ 문화체험 활동(아동놀이 프로그램, 공연관람, 음악회 등)
- ⑤ 자원봉사 프로그램
- ⑥ 취미·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 ⑦ 개별상담 프로그램(가족 및 친구관계, 성격 등)
- ⑧ 학습지원 프로그램(공부방 개선사업, 학습지 지원 등)
- ⑨ 아동권리증진 프로그램(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 ⑪ 기타()

- ① 자원봉사 프로그램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공부방 개선사업, 학습지 지원 등)
- ③ 직업체험 프로그램 ④ 교육/여가 프로그램(외국어, 컴퓨터 등)
- ⑤ 동아리 활동 ⑥ 문화프로그램(공연관람, 음악회 등)
- ⑦ 고민상담(가족 및 친구관계, 이성교제, 성격 등)
- ⑧ 사회참여 프로그램(정치참여, 캠페인활동, 권익증진 등)
- ⑨ 기타()

- ① 있다. ② 없다.
- 36번 문항 응답 → 35번 문항 응답

- ① 시간이 없다. ② 참여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 ③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
- ④ 참여방법을 모른다. ⑤ 기타()

- ① 평일 오전 ② 평일 오후 ③ 평일 저녁
④ 주말 오전 ⑤ 주말 오후 ⑥ 기타()

다음은 성인(20세~40세 미만)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37. 귀하가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주거 및 식생활의 어려움 | ② 경제적인 어려움(구직, 실직, 과다지출 등) |
| ③ 가족관계(부모, 부부, 자녀 등) | ④ 여가·문화 취미생활 부족 |
| ⑤ 건강문제(신체적, 정신적 등) | ⑥ 진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 |
| ⑦ 자녀양육 | ⑧ 기타() |

38. **(1인 가구만 해당)**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식생활 어려움 | ② 심리·정서적 어려움(고독, 우울, 스트레스 등) |
| ③ 사회적관계 어려움(대인관계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 ⑤ 주거환경 | ⑥ 문화·여가의 어려움 |
| ⑦ 기타() | |

39. 우리 복지관에서 위와 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 ① 꼭 참여하겠다. |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 | ⑤ 참여하지 않겠다. | |

**다음은 중·장년(40세~65세 미만)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40. 귀하가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자녀 양육 | ② 경제적인 어려움 |
| ③ 여가·문화·취미생활 부족 | ④ 경력의 단절 |
| ⑤ 취업의 어려움 | ⑥ 가족관계(부부, 자녀 등) |
| ⑦ 불안, 스트레스 및 소진 | ⑧ 은퇴 이후의 삶 |
| ⑨ 노인부양(부모부양, 부양비, 치매 등) | ⑩ 기타() |

41. 귀하에게 필요한 혹은 참여하고 싶은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자녀 양육 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 ② 경제적 지원(생필품, 식료품, 후원금 등) |
| ③ 여가·문화,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 | ④ 취업과 관련된 교육·연계 프로그램 |
| ⑤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등 | ⑥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모임 등 |
| ⑦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 ⑧ 주민과 교류하고 활동하는 자조모임 |
| ⑨ 건강증진 프로그램 | ⑩ 기타() |

42. 우리 복지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 ① 꼭 참여하겠다. |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 | ⑤ 참여하지 않겠다. | |

1957년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만 응답해 주세요.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시오

- 97 –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답 주체는? ① 본인 ② 보호자
◎ 장애를 가진 분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장애를 가진 분의 연령은? ()세
◎ 장애정도 및 유형? 장애정도 □경증 □중증 ()장애

46. 지역 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취업 기회 제한
③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④ 장애 치료 기관의 부족
⑤ 장애가족으로 인한 양육 및 보호문제 ⑥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족
⑦ 주·야간 보호시설 및 생활시설의 부족 ⑧ 기타

47.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 ① 가족 및 친척 ② 친구 또는 이웃 ③ 스스로 해결 ④ 종교단체
⑤ 사회복지기관 ⑥ 각 동 주민센터 ⑦ 학교 선생님 ⑧ 기타 ()

48.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① 개별치료 프로그램(언어, 인지, 특수체육 등)
② 전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부모, 가족, 심리상담 등)
③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연령, 유형 등)
④ 장애·비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
⑤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직업재활, 취업 등)
⑥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2. 11.
발행인	명은주
발행처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서로 9(신장동)
전 화	031) 790-2900
팩 스	031) 796-2935
홈페이지	www.holthanam.or.kr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